

WEBVTT

00:00:10.251 --> 00:00:11.544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644 --> 00:00:12.844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944 --> 00:00:16.042

오늘 이 시간에는 운문에서
표현 부분을 볼 겁니다.

00:00:16.142 --> 00:00:20.195

이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
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거고요.

00:00:20.295 --> 00:00:25.000

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
많이 공부했을 것 같아요.

00:00:25.100 --> 00:00:27.919

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가장
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

00:00:28.019 --> 00:00:29.946

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.

00:00:30.046 --> 00:00:32.645

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잘
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

00:00:32.745 --> 00:00:34.977

다시 한번 이렇게 좀
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.

00:00:35.077 --> 00:00:38.198

첫 번째 표현 보면 제일
첫 번째 운율부터 나옵니다.

00:00:38.298 --> 00:00:42.346

이게 시라고 하는 게 다른 산문과
차이가 있는 게 바로 운율이잖아요.

00:00:42.446 --> 00:00:46.041

그러니까 운율은 운과
율격을 통칭하는 것으로.

00:00:46.141 --> 00:00:49.716

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
여러분 이거 들어 봤어요?

00:00:49.816 --> 00:00:55.649

두운, 요운, 그다음에 각운
이런 거 들어 봤니, 애들아?

00:00:55.749 --> 00:00:59.264

두운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
처음에 똑같은 소리가 나오면

00:00:59.364 --> 00:01:00.570

두운이 되는 거고.

00:01:00.670 --> 00:01:03.618
요운이라고 하는 건 중간,
각운이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에

00:01:03.718 --> 00:01:05.525
똑같은 소리가 나오면
각운이 되는 거예요.

00:01:05.625 --> 00:01:10.259
두 자가 머리 두 자고, 요 자는 허리
요 자고, 각 자는 다리 각 자예요.

00:01:10.359 --> 00:01:13.049
우리 왜 이인삼각 경기라고
들어보신 적 있죠?

00:01:13.149 --> 00:01:16.502
말 하나 묶어서 두 사람인데 3각,
다리가 3개가 되는 거거든요.

00:01:16.602 --> 00:01:18.200
그래서 이인삼각.

00:01:18.300 --> 00:01:20.020
그거를 이제 운이라고 합니다.

00:01:20.120 --> 00:01:23.648
운율은 운과 율격을 통칭하는
것으로 시를 읽을 때

00:01:23.748 --> 00:01:26.570
느낄 수 있는 말의 가락, 리듬을
뜻하는 게 바로 운율이죠.

00:01:26.670 --> 00:01:30.040
외형률은 겉으로 드러난 음율을
외형률이라고 하는데요.

00:01:30.140 --> 00:01:32.373
음절, 음보, 음의 고저.

00:01:32.473 --> 00:01:34.784
음의 고저 그거에
따라서 달라지고.

00:01:34.884 --> 00:01:37.903
장단 등의 규칙적인 운율이
시의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며

00:01:38.003 --> 00:01:40.992
주로 정형시에서 볼 수
있다, 이게 외형률이에요.

00:01:41.092 --> 00:01:44.522
내재율은 시에서 겉으로 드러나지
않고 잠재적으로 깃들어 있는

00:01:44.622 --> 00:01:47.514
운율을 나타내는데 시어라든가

행, 연 또는 작품 전체에서

00:01:47.614 --> 00:01:51.701

이루어지면서 주로 자유시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운율 중에서

00:01:51.801 --> 00:01:53.282

내재율이라고 하는 겁니다.

00:01:53.382 --> 00:01:55.041

정형시에서는 외형률이고요.

00:01:55.141 --> 00:01:58.771

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형시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.

00:01:58.871 --> 00:02:01.962

뭐냐면 시조 생각하면 되고, 향가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2:02.062 --> 00:02:04.686

그게 정형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2:04.786 --> 00:02:07.594

현대시에서는 거의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

00:02:07.694 --> 00:02:09.862

운율의 종류는 음위율인데요.

00:02:09.962 --> 00:02:15.344

일정한 위치에 비슷한 음운을 반복해서 생기는 운율이라고 얘기했는데.

00:02:15.444 --> 00:02:21.100

예를 들어서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.

00:02:21.200 --> 00:02:23.556

이런 식으로 일정한 위치에 나타나잖아.

00:02:23.656 --> 00:02:27.816

특히 마지막에 나타나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면 각운이라고 합니다.

00:02:27.916 --> 00:02:31.454

이걸 바로 뭐라고 하나면 음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.

00:02:31.554 --> 00:02:32.877

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

00:02:32.977 --> 00:02:34.680

받침으로 ㅇ이 와도.

00:02:34.780 --> 00:02:37.585

ㅇ 같은 경우는 울림소리니까 운율감을 줄 수 있죠.

00:02:37.685 --> 00:02:40.157

선생님 이름이 김태동이잖아요.

00:02:40.257 --> 00:02:42.767

그러면 선생님 이름이 좀
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.

00:02:42.867 --> 00:02:46.376

제가 아는 선배가 제가 이렇게
항상 전화하면 기분이 나빠요.

00:02:46.476 --> 00:02:48.957

뭐냐면 형님 접니다라고
얘기하면 뭐라고 하나면

00:02:49.057 --> 00:02:51.971

응, 태동 태동 얘기하면 되게
가벼워 보이고 기분이 안 좋아요.

00:02:52.071 --> 00:02:54.709

선생님 이름이 만약에
김태도였어요, 어땠을까요?

00:02:54.809 --> 00:02:56.049

상당히 멋있어 보이죠.

00:02:56.149 --> 00:02:57.885

진중하고 좀 진지해
보이고 이러잖아요.

00:02:57.985 --> 00:03:01.390

그러니까 김태도가
아니고 김태동이니까

00:03:01.490 --> 00:03:03.668

이름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.

00:03:03.768 --> 00:03:05.500

어렸을 때 제 이름이 되게
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

00:03:05.600 --> 00:03:08.093

지금은 다 기억을 잘
해주시니까 이름이 괜찮죠.

00:03:08.193 --> 00:03:11.049

그래도 어머니한테 다행인 게
부모님한테 다행인 게 뭐냐면

00:03:11.149 --> 00:03:12.627

김탱동이 아닌 게
어디예요, 그렇지요?

00:03:12.727 --> 00:03:15.511

그러면 뭐 탱탱볼처럼 튀어
다녔을 겁니다, 아마.

00:03:15.611 --> 00:03:19.150

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일정한
위치에서 음이 나타나면서

00:03:19.250 --> 00:03:21.815

운율감을 주는 거다 이렇게
생각하시면 되고.

00:03:21.915 --> 00:03:25.135

음보율이라고 하면 이게
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

00:03:25.235 --> 00:03:26.956

한 번에 끊어 읽는 단위입니다.

00:03:27.056 --> 00:03:28.576

글자 수량 크게 상관이 없어요.

00:03:28.676 --> 00:03:31.953

한 번에 끊어 읽을 수 있는 단위를
바로 음보율이라고 합니다.

00:03:32.053 --> 00:03:35.936

음보의 규칙적인 반복으로
만들어지는 운율인데요.

00:03:36.036 --> 00:03:39.042

음보는 시에서 한 호흡으로
끊어 읽는 단위를 말하는데.

00:03:39.142 --> 00:03:41.951

보통 3음보나 4음보가 나타나죠.

00:03:42.051 --> 00:03:46.530

보통 이제 3음보 같은 경우는
민요적 율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.

00:03:46.630 --> 00:03:50.831

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
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.

00:03:50.931 --> 00:03:54.787

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
작품인데, 3음보가 나타나죠.

00:03:54.887 --> 00:03:57.521

글자 수로 보면 7글자, 5글자.

00:03:57.621 --> 00:04:01.864

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나면
7.5조 이것게도 얘기합니다.

00:04:01.964 --> 00:04:04.026

7글자, 5글자라고 해서.

00:04:04.126 --> 00:04:08.573

규칙적으로 3음보를 반복해서 운율을
형성하는 게 바로 음보율이에요.

00:04:08.673 --> 00:04:12.604

음수율은 음절의 수가 단위가
반복돼서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

00:04:12.704 --> 00:04:15.815

나타나는 건데 3.4조,
3.3.2조.

00:04:15.915 --> 00:04:18.338

3.4조는 3글자, 4글자
이렇게 반복되는 거고

00:04:18.438 --> 00:04:21.043

3.3.2조는 3글자,
3글자, 2글자.

00:04:21.143 --> 00:04:22.916

4.4조, 7.5조
이런 것들이 있어요.

00:04:23.016 --> 00:04:26.676

사실은 3.4조, 4.4조
이런 것들은 일본 문학에서

00:04:26.776 --> 00:04:28.602

좀 흉내낸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.

00:04:28.702 --> 00:04:30.910

그래서 안 쓰는 게 좋다
이런 얘기를 하던데.

00:04:31.010 --> 00:04:34.150

이미 좀 굳어져서 많이 쓰이고 있는
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.

00:04:34.250 --> 00:04:36.610

살어리 살어리 랫다.

00:04:36.710 --> 00:04:38.656

당연히 3.3.2조예요.

00:04:38.756 --> 00:04:41.348

글자 수 보면 3글자,
3글자, 2글자니까.

00:04:41.448 --> 00:04:45.183

또한 3음보가 되겠죠, 세 번
끊어 읽을 수 있으니까.

00:04:45.283 --> 00:04:47.959

규칙적으로 3글자, 3글자,
2글자 글자 수를 반복해서

00:04:48.059 --> 00:04:52.177

3.3.2조의 운율을 형성하고
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

00:04:52.277 --> 00:04:55.083

그다음에 뭐냐면 시상이
전개된다 이런 건데요.

00:04:55.183 --> 00:04:59.200

시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인의
생각을 바로 시상이라고 합니다.

00:04:59.300 --> 00:05:02.671

그러니까 시상이 전개된다고
하면 시인이 시를 쓸 때

00:05:02.771 --> 00:05:05.296

어떤 방식으로 쓰느냐,
이걸 찾는 거예요.

00:05:05.396 --> 00:05:08.265

주제 형성화를 위해서 시인이
떠올린 구상들을 전개하고

00:05:08.365 --> 00:05:09.605

조직하는 방식인데.

00:05:09.705 --> 00:05:11.687

시간의 흐름에 따라
조직하는 거예요.

00:05:11.787 --> 00:05:14.099

그러면 시간의 흐름에
따라 조직하는 것은

00:05:14.199 --> 00:05:17.469

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행을
연결해서 전개하는 방법을

00:05:17.569 --> 00:05:19.729

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데.

00:05:19.829 --> 00:05:21.592

순행과 역순행이라고
하는 게 있어요.

00:05:21.692 --> 00:05:25.950

순행은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고,
역순행은 뭐냐면 과거 회상만 나오면

00:05:26.050 --> 00:05:27.893

역순행이 되는 거겠죠.

00:05:27.993 --> 00:05:30.809

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
단어들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.

00:05:30.909 --> 00:05:32.967

아침에서 점심, 저녁.

00:05:33.067 --> 00:05:36.508

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런
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.

00:05:36.608 --> 00:05:38.329

또 하나는 이런 것도
있을 수 있어요.

00:05:38.429 --> 00:05:42.287

뭐냐면 잠을 잤다, 잠을
깼다 이런 거 있죠.

00:05:42.387 --> 00:05:47.409

자다가 깨는 것은 당연히 뭐냐면
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.

00:05:47.509 --> 00:05:48.821

잠을 자다가 깼다.

00:05:48.921 --> 00:05:52.272

그다음에 또는 꽃이
피었다 꽃이 졌어요.

00:05:52.372 --> 00:05:55.807

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
나타내는 거겠죠, 아시겠죠?

00:05:55.907 --> 00:06:00.030

공간의 이동을 보면 공간의
이동은 공간적 배경을 달리하며

00:06:00.130 --> 00:06:01.406

시상을 전개하는 방법.

00:06:01.506 --> 00:06:04.065

그러니까 화자가 실제로
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6:04.165 --> 00:06:08.717

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면 시선의 이동은
화자 자신은 움직임이 없어요.

00:06:08.817 --> 00:06:10.993

눈만 이렇게 변하는 거죠.

00:06:11.093 --> 00:06:13.608

시적 화자가 시선을 이동시키며
전개하는 방법인데.

00:06:13.708 --> 00:06:16.604

위, 아래, 먼 곳, 가까운
곳, 왼쪽, 오른쪽인데.

00:06:16.704 --> 00:06:20.860

특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먼
곳, 가까운 곳 이런 거 따질 때는

00:06:20.960 --> 00:06:23.615

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머릿속으로
눈으로 이렇게 봤다,

00:06:23.715 --> 00:06:26.737

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
카메라를 항상 떠올리세요.

00:06:26.837 --> 00:06:28.637

카메라라고 써볼게요, 여러분.

00:06:28.737 --> 00:06:31.428

카메라 렌즈가 어떤
대상을 비쳤어요.

00:06:31.528 --> 00:06:36.588

그리고 그다음 대상을 비쳤을 때
그게 카메라가 줌 인 되는지

00:06:36.688 --> 00:06:39.040

zoom 아웃 되는지, 무슨
뜻인지 아시겠죠?

00:06:39.140 --> 00:06:42.830

zoom 인 되면 그 원경에서
근경으로 이동하는 거고,

00:06:42.930 --> 00:06:48.208

zoom 아웃이 되면 근경에서 원경으로
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6:48.308 --> 00:06:49.623

아시겠죠?

00:06:49.723 --> 00:06:52.847

선경 후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
외부 풍경 묘사를 한 다음에

00:06:52.947 --> 00:06:56.960

내면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, 이런
걸 선경 후정이라고 합니다.

00:06:57.060 --> 00:07:01.927

수미상관은 제일 처음하고 끝
부분이 비슷하게 나오면서

00:07:02.027 --> 00:07:03.919

강조하거나 안정감을 주는 거죠.

00:07:04.019 --> 00:07:05.389

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.

00:07:05.489 --> 00:07:09.395

보시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게
여기에서 A 부분이 있고,

00:07:09.495 --> 00:07:11.349

여기가 만약에 A'가 있어요.

00:07:11.449 --> 00:07:12.685

똑같지 않아요.

00:07:12.785 --> 00:07:14.883

그래도 수미상관이 가능한 거예요.

00:07:14.983 --> 00:07:17.034

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, 여러분?

00:07:17.134 --> 00:07:19.479

여기에서 보면 A 부분이
이렇게 있잖아요.

00:07:19.579 --> 00:07:23.861

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B가
나오고, 그다음에 밑에서 윗부분에

00:07:23.961 --> 00:07:25.836

만약에 A'가 나왔어요.

00:07:25.936 --> 00:07:27.528

이것도 수미상관이 될까요?

00:07:27.628 --> 00:07:29.092

이것도 수미상관이 돼요.

00:07:29.192 --> 00:07:32.010

즉, 수미상관은 애들아, 우리가
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뭐냐면

00:07:32.110 --> 00:07:34.641

1연과 마지막 연이라고 생각하는데

00:07:34.741 --> 00:07:37.385

그게 아니고 숫자가 머리 수 자,
앞부분이고,

00:07:37.485 --> 00:07:40.493

그다음에 미 자는 꼬리 미 자,
뒷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7:40.593 --> 00:07:43.879

앞부분, 뒷부분 이렇게 차이가
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7:43.979 --> 00:07:48.192

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면
수미상관이 될 수 있죠.

00:07:48.292 --> 00:07:52.069

그다음에 기승전결이라고 하는
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.

00:07:52.169 --> 00:07:54.905

4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,
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7:55.005 --> 00:07:56.634

시상이 제시되죠.

00:07:56.734 --> 00:07:58.275

처음에 화자의 생각이 제시돼요.

00:07:58.375 --> 00:08:01.493

그다음에 심화,
계승되고요, 전환되고요.

00:08:01.593 --> 00:08:04.648

주제 제시의 흐름에 따라
시상을 전개하는데.

00:08:04.748 --> 00:08:07.792

주로 한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.

00:08:07.892 --> 00:08:10.891

한시 보면 4줄짜리가
있고 8줄짜리가 있어요.

00:08:10.991 --> 00:08:14.841

4줄을 절구라고 하고,
8줄을 율시라고 하는데.

00:08:14.941 --> 00:08:18.275

그게 이렇게 2줄씩 묶이면,
8줄이면 2줄씩 묶이잖아요.

00:08:18.375 --> 00:08:19.797
이것도 역시 기승전결.

00:08:19.897 --> 00:08:23.227
그다음에 절구 4줄짜리에도 1줄,
2줄, 3줄, 4줄이 기승전결.

00:08:23.327 --> 00:08:25.518
이렇게 전개된다고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8:25.618 --> 00:08:33.006
예를 들면 강물이
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.

00:08:33.106 --> 00:08:35.105
새가 더욱 희어요.

00:08:35.205 --> 00:08:37.197
산 푸르니 꽃은 불타는 것 같아요.

00:08:37.297 --> 00:08:43.153
특히 여기에서는 꽃하고 희다 이런
것들이 바로 색채 대비도 쓰였어요.

00:08:43.253 --> 00:08:48.079
올봄도 보는 가운데 또 지나가니
어느 해에나 고향에 돌아갈고.

00:08:48.179 --> 00:08:51.508
이거 2줄, 2줄 이렇게
묶이면 경치를 봤죠?

00:08:51.608 --> 00:08:52.887
아름다운 경치예요.

00:08:52.987 --> 00:08:54.728
고향을 떠올린 것 같아요, 그렇죠?

00:08:54.828 --> 00:08:57.067
내가 언제쯤 고향에
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

00:08:57.167 --> 00:08:58.924
이렇게 근심, 걱정을
하고 있는 거거든요.

00:08:59.024 --> 00:09:01.857
그래서 여기에 바로 선경 후정이
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

00:09:01.957 --> 00:09:05.236
앞의 두 행은 봄의 경치를
묘사했다, 선경이에요.

00:09:05.336 --> 00:09:07.884
뒤의 두 행은 고향에 돌아가고
싶은 화자의 심정을 표현했어.

00:09:07.984 --> 00:09:09.781

후정이 되는 거겠죠.

00:09:09.881 --> 00:09:13.208

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
형상화는 어떤 형체를 만들어낸다

00:09:13.308 --> 00:09:17.468

이런 건데,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
것으로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죠.

00:09:17.568 --> 00:09:20.245

형체로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
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서

00:09:20.345 --> 00:09:25.422

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만들어내는
것을 형상화라고 합니다.

00:09:25.522 --> 00:09:27.089

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볼까요?

00:09:27.189 --> 00:09:28.397

시의 표현 기법입니다.

00:09:28.497 --> 00:09:30.327

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.

00:09:30.427 --> 00:09:34.259

모르는 내용들은 별로 없을
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

00:09:34.359 --> 00:09:35.736

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.

00:09:35.836 --> 00:09:40.491

비유법은 뭐냐면 비유법은 원관념과
보조 관념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.

00:09:40.591 --> 00:09:42.762

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관계.

00:09:42.862 --> 00:09:45.767

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하면
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

00:09:45.867 --> 00:09:47.274

바로 내 마음이잖아요.

00:09:47.374 --> 00:09:50.323

그게 바로 원관념이고, 호수에
비유하고 있는 거죠.

00:09:50.423 --> 00:09:52.693

그런 방법들이 여기
여러 개가 나왔는데

00:09:52.793 --> 00:09:55.324

직유법은 뭐냐면 직접
비유하는 겁니다.

00:09:55.424 --> 00:10:01.189
~처럼, ~같이, ~듯이, ~인 양
이런 형태가 직접 들어가 있으면

00:10:01.289 --> 00:10:03.011
그게 바로 직유법이죠.

00:10:03.111 --> 00:10:06.166
구름에 달 가듯이, 이런 건
이제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요.

00:10:06.266 --> 00:10:07.522
시력의 문제입니다.

00:10:07.622 --> 00:10:08.926
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.

00:10:09.026 --> 00:10:12.169
은유법은 A는 B이다 같은
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

00:10:12.269 --> 00:10:14.006
암시적으로 연결하는 건데.

00:10:14.106 --> 00:10:16.355
내 귀는 하나의 소라 꺾데기다.

00:10:16.455 --> 00:10:19.696
A는 B이다 이런 형태로
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유법이죠.

00:10:19.796 --> 00:10:22.247
은유법은 뭐냐면 숨겨져
있다, 이런 뜻입니다.

00:10:22.347 --> 00:10:25.509
그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
아니라 그 관계가 숨겨져 있다

00:10:25.609 --> 00:10:27.140
이런 뜻이에요.

00:10:27.240 --> 00:10:29.202
의인법하고 활유법인데요.

00:10:29.302 --> 00:10:31.639
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
사람처럼 표현한다.

00:10:31.739 --> 00:10:34.392
활유법은 생명이 없는
무생물을 생명이 있는

00:10:34.492 --> 00:10:36.193
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.

00:10:36.293 --> 00:10:37.530
헛갈리지 마시고요.

00:10:37.630 --> 00:10:38.489

보세요.

00:10:38.589 --> 00:10:42.388
해바라기는 첫 시약시인데 사흘이
지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아니 든다.

00:10:42.488 --> 00:10:44.561
여기에서 어디에서
의인법이 나왔을까요?

00:10:44.661 --> 00:10:46.304
시약시라고 하는 게 뭐니까?

00:10:46.404 --> 00:10:50.074
우리 왜 사투리로 새색시, 색시
이거를 시약시라고 하거든요.

00:10:50.174 --> 00:10:52.275
그러니까 해바라기를
사람처럼 비유했죠.

00:10:52.375 --> 00:10:57.030
그다음에 청산이 깃을 친다라고
하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깃,

00:10:57.130 --> 00:10:59.266
깃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
친다 이런 뜻입니다.

00:10:59.366 --> 00:11:01.773
그러니까 이것도 역시
활유법이 되겠죠.

00:11:01.873 --> 00:11:04.150
청산이라고 하는 건
산이 무생물이잖아요.

00:11:04.250 --> 00:11:06.276
깃을 친다고 하는 것은
날개가 있는 거니까

00:11:06.376 --> 00:11:07.699
사람한테는 날개가 없잖아요.

00:11:07.799 --> 00:11:09.494
그러니까 활유법이 되는 거죠.

00:11:09.594 --> 00:11:11.087
대유법이 좀 어려운데요.

00:11:11.187 --> 00:11:13.717
대유법은 사물의 일부나
특징을 통해서,

00:11:13.817 --> 00:11:15.647
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낸다.

00:11:15.747 --> 00:11:20.284
즉, 다시 말하면 대표 비유법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11:20.384 --> 00:11:22.861

예를 들어서 빼앗긴 들에도
봄은 오는가라고 했는데

00:11:22.961 --> 00:11:26.519

여기에서 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
우리 조국 국토를 나타내는 거죠.

00:11:26.619 --> 00:11:29.635

빼앗긴 산이라고 표현해도 되고
다른 거로 표현해도 되잖아요.

00:11:29.735 --> 00:11:31.265

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

00:11:31.365 --> 00:11:34.491

어떤 사람이 나에게 빵을
달라, 이거 무슨 얘기야?

00:11:34.591 --> 00:11:38.748

우리에게, 노비들이,
천민들이 나에게 빵을 달라

00:11:38.848 --> 00:11:40.688

뭐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.

00:11:40.788 --> 00:11:42.314

나에게 빵을 달라, 이거는 뭐야?

00:11:42.414 --> 00:11:43.756

먹을 걸 달라는 뜻이잖아.

00:11:43.856 --> 00:11:46.086

그런데 여기 귀족이 뭐라고
하냐면 그래, 여기 밥 있어.

00:11:46.186 --> 00:11:47.539

밥을 이렇게 줬단 말이야.

00:11:47.639 --> 00:11:49.735

그랬더니 애가 아니야,
나는 빵 마니아란 말이야.

00:11:49.835 --> 00:11:51.599

이런 뜻이 아니잖아요, 그렇지?

00:11:51.699 --> 00:11:54.844

빵을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도
먹을 것을 달라 이런 거니까

00:11:54.944 --> 00:11:59.556

그런 것들이 바로
대유법입니다, 아시겠죠?

00:11:59.656 --> 00:12:01.595

다음 넘어가면 변화법입니다.

00:12:01.695 --> 00:12:04.630

문장 자체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
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
00:12:04.730 --> 00:12:06.787

역설하고 반어인데요.

00:12:06.887 --> 00:12:10.181

역설하고 반어는 이걸
여러분이 항상 헛갈려하시고

00:12:10.281 --> 00:12:11.296

어려워하실 수 있어요.

00:12:11.396 --> 00:12:13.813

역설은 겉으로 봤을 때예요.

00:12:13.913 --> 00:12:16.108

겉으로 봤을 때 모순이
존재하는 거고,

00:12:16.208 --> 00:12:19.415

반어는 겉으로 봤을 때 모순이
존재하지 않는 겁니다.

00:12:19.515 --> 00:12:22.366

예를 들어서 역설은
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,

00:12:22.466 --> 00:12:24.251

그 안에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.

00:12:24.351 --> 00:12:27.907

즉, 찬란하다 플러스 개념이고,
슬픔은 마이너스잖아요.

00:12:28.007 --> 00:12:30.796

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게
찬란하다는 거야 슬프다는 거야?

00:12:30.896 --> 00:12:32.915

두 개가 이렇게 같이
수식을 하면 안 되겠죠.

00:12:33.015 --> 00:12:38.206

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하면
플러스, 마이너스 역설법이 된다.

00:12:38.306 --> 00:12:40.532

반어법은, 이게 좀 어려워요.

00:12:40.632 --> 00:12:43.414

본래 의도와 반대로
표현하는 거거든요.

00:12:43.514 --> 00:12:45.589

그러니까 본래 의도를
찾아내는 것이 어렵죠.

00:12:45.689 --> 00:12:50.037

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
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.

00:12:50.137 --> 00:12:51.663

정말 눈물 흘리겠다는 거거든요.

00:12:51.763 --> 00:12:55.056

그런데 아무런 눈물 흘리지
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

00:12:55.156 --> 00:12:56.686

반어적으로 표현된 거죠.

00:12:56.786 --> 00:13:00.712

설의법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
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해서

00:13:00.812 --> 00:13:02.805

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.

00:13:02.905 --> 00:13:05.934

왜 우리 답정녀, 답정남이라고
하는 게 바로 이런 설의법하고

00:13:06.034 --> 00:13:07.063

똑같은 거예요.

00:13:07.163 --> 00:13:08.564

애들아, 선생님 잘생기지 않았니?

00:13:08.664 --> 00:13:09.607

대답하는 게 아닙니다.

00:13:09.707 --> 00:13:12.626

대답하는 게 아니고 잘생겼다는
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.

00:13:12.726 --> 00:13:14.592

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.

00:13:14.692 --> 00:13:15.654

사랑을 안다는 거죠.

00:13:15.754 --> 00:13:19.543

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의
형식을 이용한 겁니다.

00:13:19.643 --> 00:13:23.612

도치법은 문장, 단어를 정상적인
순서와 다르게 배열했어.

00:13:23.712 --> 00:13:25.520

이걸 도치법이라고 하죠.

00:13:25.620 --> 00:13:28.095

핏버들 가지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.

00:13:28.195 --> 00:13:31.568

보내노라 임에게, 임에게 보낸다 이런
식으로 순서가 되어야 되는 거죠.

00:13:31.668 --> 00:13:34.534

대구법은 대칭 구조법이라고
생각하시면 돼요.

00:13:34.634 --> 00:13:37.982

어조 또는 내용이 비슷한 문장을
나란히 짝을 맞춰 배치하는 방식이

00:13:38.082 --> 00:13:39.195
바로 대구법이죠.

00:13:39.295 --> 00:13:41.370
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.

00:13:41.470 --> 00:13:43.840
이런 것들이 바로 대구법입니다.

00:13:43.940 --> 00:13:46.008
대칭 구조예요.

00:13:46.108 --> 00:13:48.261
다음은 강조법인데요.

00:13:48.361 --> 00:13:51.644
강조법은 영탄법, 감탄사나
감탄 조사를 사용해서

00:13:51.744 --> 00:13:54.138
감정을 강하게 나타낸다.

00:13:54.238 --> 00:13:55.717
오오, 이런 것들이예요.

00:13:55.817 --> 00:13:58.334
오오, 사철나무 앞에
숨은 청개구리 고놈이다.

00:13:58.434 --> 00:14:00.308
오오 이런 것들이 바로 영탄법이죠.

00:14:00.408 --> 00:14:03.068
돈호법은 사람 이름을 부르는
걸 돈호법이라고 합니다.

00:14:03.168 --> 00:14:06.575
쉴쉴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
행인아, 이렇게 부르죠?

00:14:06.675 --> 00:14:07.895
이게 돈호법입니다.

00:14:07.995 --> 00:14:11.398
강조법에는 여러분, 과장법이라고
하는 것도 있어요, 과장법.

00:14:11.498 --> 00:14:14.334
태산 같은 집채만 한 파도.

00:14:14.434 --> 00:14:16.154
이런 거는 과장되게 표현한 거죠.

00:14:16.254 --> 00:14:17.348
오케이?

00:14:17.448 --> 00:14:19.386
이런 표현법들이 있다는 거

알아두시면 되겠네요.

00:14:19.486 --> 00:14:21.866

문제로 개념을 한번을
확인해 보겠습니다.

00:14:21.966 --> 00:14:23.581

문제로 개념 확인해볼게요.

00:14:23.681 --> 00:14:26.593

저는 분필을 잠시 주우러
갔다 오겠습니다.

00:14:26.693 --> 00:14:34.121

1번, 운율은 음운의 반복, 음절과
단어의 반복, 음절 수와 음보의 반복,

00:14:34.221 --> 00:14:37.777

통사 구조의 반복, 음성
상징어의 반복 등으로 나타낸다.

00:14:37.877 --> 00:14:39.451

맞습니다, 적절해요.

00:14:39.551 --> 00:14:44.153

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면 애들아
이거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에요.

00:14:44.253 --> 00:14:45.861

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.

00:14:45.961 --> 00:14:49.524

나는 짜장면이 좋아,
너는 짬뽕이 싫어.

00:14:49.624 --> 00:14:52.378

~는 ~가 좋아 이런
구조가 똑같다는 거죠.

00:14:52.478 --> 00:14:56.562

나, 너, 짬뽕, 짜장, 좋아,
싫어 서로 대조잖아요.

00:14:56.662 --> 00:15:00.907

그렇지만 이거는 대칭 구조를
가지고 있어서 대구법도 되고요.

00:15:01.007 --> 00:15:04.206

통사 구조 반복도 되는 겁니다.

00:15:04.306 --> 00:15:06.600

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
쓰인 표현법은 뭐죠?

00:15:06.700 --> 00:15:08.396

역설법이 쓰인 거고.

00:15:08.496 --> 00:15:11.054

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여
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방법을

00:15:11.154 --> 00:15:12.682
반어법이라고 하죠.

00:15:12.782 --> 00:15:15.021
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을
비슷하게 하여 안정감을 주는

00:15:15.121 --> 00:15:18.421
시상 전개 방식을
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.

00:15:18.521 --> 00:15:20.319
개념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.

00:15:20.419 --> 00:15:24.494
첫 번째 유형 연습
1번으로 한번 가 볼게요.

00:15:24.594 --> 00:15:29.553
여러분, 보시면 1번에 나오는
내용들을 짚

00:15:29.653 --> 00:15:32.635
확인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
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

00:15:32.735 --> 00:15:34.162
시작해 볼게요.

00:15:34.262 --> 00:15:38.218
1번,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.

00:15:38.318 --> 00:15:41.769
이게 바로 뭐냐면
표현상의 특징이에요.

00:15:41.869 --> 00:15:44.026
화자가 어떤 시상을 전개하잖아요.

00:15:44.126 --> 00:15:47.485
시상을 전개할 때 어떤 여러 가지
방법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.

00:15:47.585 --> 00:15:50.746
그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
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

00:15:50.846 --> 00:15:52.347
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.

00:15:52.447 --> 00:15:56.472
예를 들어서 기다리리, 출제
하리, ~한다면, ~끝에.

00:15:56.572 --> 00:15:59.239
이게 본문에 사용된 건데 이게
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를

00:15:59.339 --> 00:16:01.226
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

00:16:01.326 --> 00:16:04.732

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,
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

00:16:04.832 --> 00:16:08.093

전체적으로 뭐가 파악이 되어야
되냐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

00:16:08.193 --> 00:16:12.155

주제 의식이 먼저 파악이 된
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문장이나

00:16:12.255 --> 00:16:15.341

이 말투나 이게 어떤 의도로
쓰였는지 확인하셔야지

00:16:15.441 --> 00:16:17.062

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죠.

00:16:17.162 --> 00:16:20.378

2번을 보시면 보기의 맥락에서
윗글을 해석한다고 할 때

00:16:20.478 --> 00:16:22.246

시어에 대한 이해로
가장 적절한 것은.

00:16:22.346 --> 00:16:25.788

이것은 뭐냐면 여러분, 경주마
보면 이렇게 앞으로 보라고 하는

00:16:25.888 --> 00:16:28.337

이런 게 썩어져 있잖아요, 그렇죠?

00:16:28.437 --> 00:16:30.120

이것만 보고 판단해라 이런 겁니다.

00:16:30.220 --> 00:16:32.217

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
있을 수 있겠죠.

00:16:32.317 --> 00:16:34.297

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 봐라,

00:16:34.397 --> 00:16:36.361

보기만 가지고 판단해
봐라 이런 거예요.

00:16:36.461 --> 00:16:40.189

서로 살아가면서 맺어지지 못하는
사연으로 고민하는 연인들이 많다.

00:16:40.289 --> 00:16:43.242

이거는 뭐냐면 개인적 차원으로
이 시를 보는 거죠.

00:16:43.342 --> 00:16:47.660

그런데 (나)를 보면 해방과 더불어
한반도는 분단 시대 극복이라는

00:16:47.760 --> 00:16:49.037

과제를 안게 되었다.

00:16:49.137 --> 00:16:51.624

이건 사회적 차원으로 이 시를
한번 이해해 보라 이런 거겠죠.

00:16:51.724 --> 00:16:54.722

그럼 개인적 차원과
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면

00:16:54.822 --> 00:16:58.143

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
바뀌는지 나오는 사람이

00:16:58.243 --> 00:17:01.002

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
확인해 보면 되겠네요.

00:17:01.102 --> 00:17:04.602

그다음에 ㉠~㉡에 대한
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

00:17:04.702 --> 00:17:06.138

찾아라라고 얘기했는데.

00:17:06.238 --> 00:17:07.776

이것도 보세요, 여러분.

00:17:07.876 --> 00:17:10.838

긍정적 지향점이다, 부정적
상황을 드러낸다,

00:17:10.938 --> 00:17:13.686

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련의
내용이다라고 하면

00:17:13.786 --> 00:17:18.002

화자의 상황 정서를 찾아서
그걸 합치면 주제거든요.

00:17:18.102 --> 00:17:19.939

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에요.

00:17:20.039 --> 00:17:23.443

그러면 화자의 상황은
이별이죠, 정서는 슬픔이죠.

00:17:23.543 --> 00:17:24.811

그럼 주제가 뭐가 돼요?

00:17:24.911 --> 00:17:27.920

이별의 슬픔, 이렇게 주제가
되는 거죠, 이해되셨습니까?

00:17:28.020 --> 00:17:33.105

그러면 작품 보면서 작품이
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

00:17:33.205 --> 00:17:36.089

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, 아시겠죠?

00:17:36.189 --> 00:17:40.243

제목이 뭐냐면 한 그리움이
다른 그리움에게입니다.

00:17:40.343 --> 00:17:43.964

우선 제목 자체를 보니까
의인법이 쓰였어요.

00:17:44.064 --> 00:17:47.291

다시 말하면 한 그리워하는 사람이,

00:17:47.391 --> 00:17:50.424

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
하는 듯이 얘기하는 건데.

00:17:50.524 --> 00:17:52.762

그걸 그리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.

00:17:52.862 --> 00:17:55.639

이거는 우선 의인법이 쓰였습니다.

00:17:55.739 --> 00:18:01.328

이 작가가 정희성 시인으로 알고
있는데, 정희성 시인 같은 경우는

00:18:01.428 --> 00:18:03.947

그리움, 슬픔 이런 작품들을
상당히 많이 썼죠.

00:18:04.047 --> 00:18:05.170

가볼게요.

00:18:05.270 --> 00:18:07.716

어느 날 당신과 내가.

00:18:07.816 --> 00:18:11.631

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
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

00:18:11.731 --> 00:18:14.318

아니면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
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

00:18:14.418 --> 00:18:18.111

여기에서 이 당신과 나라고 하는
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죠.

00:18:18.211 --> 00:18:22.228

개인적 차원이라면 내가 사랑하는
사람을 당신이라고 표현한 거고.

00:18:22.328 --> 00:18:23.575

아니면 뭘까요?

00:18:23.675 --> 00:18:26.868

해방 이후에 분단 시대 극복이라고
하면 당신이라고 하는 게

00:18:26.968 --> 00:18:28.217

바로 뭘까요?

00:18:28.317 --> 00:18:30.051

북한, 북한을 뜻하는 거겠죠.

00:18:30.151 --> 00:18:34.836

남북 분열된 그 분단의 현실에서
헤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다.

00:18:34.936 --> 00:18:36.622
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18:36.722 --> 00:18:39.904

어느 날 당신과 내가
날과 씨로 만나서.

00:18:40.004 --> 00:18:45.133

여러분, 날과 씨가 뭐냐면 우리 비단
짚 때 물레 같은 거 이렇게 짜잖아요.

00:18:45.233 --> 00:18:48.470

그러면 줄이 위로 이렇게
쭉 내려오고 것도 있고,

00:18:48.570 --> 00:18:51.836

덜컹 착, 덜컹 이렇게
하는 거 있잖아요.

00:18:51.936 --> 00:18:54.246

그러면 이게 씨실,
날실 이런 거예요.

00:18:54.346 --> 00:18:56.311

이렇게 이렇게 엮이는 거죠.

00:18:56.411 --> 00:18:58.991

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의
비단이 되는 겁니다.

00:18:59.091 --> 00:19:01.848

그러니까 날실과 씨실이
바로 누구를 나타내냐면

00:19:01.948 --> 00:19:04.136

당신과 나를 비유적으로
표현한 거죠.

00:19:04.236 --> 00:19:05.858

그럼 당신과 나는 바로 뭐예요?

00:19:05.958 --> 00:19:11.284

화자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
아니면 남과 북일 수도 있는 거죠.

00:19:11.384 --> 00:19:15.172

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
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.

00:19:15.272 --> 00:19:17.460

뒤에 점점점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?

00:19:17.560 --> 00:19:19.234

좋겠다,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?

00:19:19.334 --> 00:19:22.029

하나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
우리의 그 꿈이 만나서

00:19:22.129 --> 00:19:24.327

한 쪽의 비단이 된다면 좋겠다.

00:19:24.427 --> 00:19:25.636

결국 뭐 하자는 얘기에요?

00:19:25.736 --> 00:19:29.776

통일하고 화합하자, 함께
이룰 수 있는 꿈을 꾸자.

00:19:29.876 --> 00:19:34.735

뭐 이런 말들이 내포적으로
의미하고 있을 겁니다.

00:19:34.835 --> 00:19:42.065

나는 기다리리, ~하리라 이런 거니까
의지적인 자세가 나타나 있어요.

00:19:42.165 --> 00:19:45.426

기다릴 것이다 이런 거니까
의지적인 자세가 나타나 있어요.

00:19:45.526 --> 00:19:46.546

의지가 있어요.

00:19:46.646 --> 00:19:48.301

추운 길목에서, 그럼 질문할까?

00:19:48.401 --> 00:19:50.567

추운 길목은 긍정적일까요,
부정적일까요?

00:19:50.667 --> 00:19:52.961

추운 길목은 부정적인
의미인 것 같죠.

00:19:53.061 --> 00:19:54.162

시련 이런 거죠.

00:19:54.262 --> 00:19:56.740

추운 길목에서 오랜
침묵과 외로움 끝에

00:19:56.840 --> 00:19:59.638

한 슬픔이 다른
슬픔에게 손을 주고.

00:19:59.738 --> 00:20:01.940

슬픔이라고 하는 것도
역시 의인법이겠죠.

00:20:02.040 --> 00:20:04.107

손을 준다고 그랬으니까,
슬픔은 손이 없잖아요.

00:20:04.207 --> 00:20:07.274

그러니까 한 슬퍼하는 사람이
다른 슬퍼하는 사람에게

00:20:07.374 --> 00:20:09.571

손을 준다는 거니까 뭘
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?

00:20:09.671 --> 00:20:13.783

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
공감하고 뭐 이런 거겠죠.

00:20:13.883 --> 00:20:17.082

이 남북 분단의 상황도
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

00:20:17.182 --> 00:20:19.697

남북 분단이 극복될 수 없을
거 아니에요, 그렇죠?

00:20:19.797 --> 00:20:23.533

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
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.

00:20:23.633 --> 00:20:25.388

그윽한 눈을 들여다보는 건 뭐예요?

00:20:25.488 --> 00:20:27.442

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.

00:20:27.542 --> 00:20:31.588

나는 너를 이해해, 나는 너를
사랑해 뭐 이런 거겠죠.

00:20:31.688 --> 00:20:34.861

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
겨울인들, 시련입니다.

00:20:34.961 --> 00:20:39.034

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
쫓게 하리, 설의법이죠.

00:20:39.134 --> 00:20:40.872

쫓게할 수 있겠느냐.

00:20:40.972 --> 00:20:42.437

절대 우리의 사랑을
쫓게할 수 없다.

00:20:42.537 --> 00:20:43.905

왜, 우리가 뭐만 한다면?

00:20:44.005 --> 00:20:48.311

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
쳐다보고 위로하고 연민,

00:20:48.411 --> 00:20:51.804

서로 동정하고, 서로
이제 공감하고 이러면

00:20:51.904 --> 00:20:54.071

절대 우리는 외롭지 않을 거다.

00:20:54.171 --> 00:20:56.956

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
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

00:20:57.056 --> 00:20:59.303

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.

00:20:59.403 --> 00:21:03.773

맨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이
수미상관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도

00:21:03.873 --> 00:21:05.026

특징적이죠.

00:21:05.126 --> 00:21:06.407

구분할 수 있었습니까, 여러분?

00:21:06.507 --> 00:21:08.145

수미상관 구조가 나타났어요.

00:21:08.245 --> 00:21:15.200

밑에 보니까 작품 더 알고가기라고
해서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건데.

00:21:15.300 --> 00:21:19.042

날실과 씨실이라고 해서 세로,
가로 만나서 비단이 되는 거죠.

00:21:19.142 --> 00:21:21.547

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꿈이야.

00:21:21.647 --> 00:21:23.320

각각은 무의미한 거예요.

00:21:23.420 --> 00:21:25.681

각각은 전혀 무의미한
건데 가치와 의미,

00:21:25.781 --> 00:21:29.920

하나의 꿈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
하나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

00:21:30.020 --> 00:21:31.100

얘기하는 거죠.

00:21:31.200 --> 00:21:37.614

정희성 시인 같은 경우는 가장
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.

00:21:37.714 --> 00:21:42.145

가장 유명한 시가 뭐냐면 저문 강에
삼을 씻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

00:21:42.245 --> 00:21:46.710

그 시가 노동자의, 중년
노동자의 한스러운 삶을

00:21:46.810 --> 00:21:48.974

표현하고 있는 작품이

가장 유명하거든요.

00:21:49.074 --> 00:21:51.422

제 기억으로는 서울대
국어교육과를 나오셨고,

00:21:51.522 --> 00:21:54.696

학교 선생님이로 열심히 수업을 하고
계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

00:21:54.796 --> 00:21:57.665

현재도 열심히 활동하고
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.

00:21:57.765 --> 00:22:01.096

작품은 그렇게 막 다작을
하는 그런 시인은 아니에요.

00:22:01.196 --> 00:22:04.333

다작을 하는 시인은
아니시고 오랜 고민 끝에

00:22:04.433 --> 00:22:06.861

시를 내놓으시는 그런
분이라고 하더라고요.

00:22:06.961 --> 00:22:10.375

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으이라고 했습니다.

00:22:10.475 --> 00:22:11.523

첫 번째 볼까요?

00:22:11.623 --> 00:22:15.489

기다리리, 출게 하겠느냐 이견
뭐 기다리리 의지적이고,

00:22:15.589 --> 00:22:19.104

출게 하겠느냐 절대 추울 수 없다라고
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 거죠.

00:22:19.204 --> 00:22:22.352

서술어로 화자의 의지나
신념을 표현하고 있다.

00:22:22.452 --> 00:22:24.543

이런 종결 어미를 통해서
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적절하죠.

00:22:24.643 --> 00:22:28.077

~다면, ~끝에 반복 사용하잖아요.

00:22:28.177 --> 00:22:32.286

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운율의
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.

00:22:32.386 --> 00:22:33.729

반복되면.

00:22:33.829 --> 00:22:36.520

태동 태동 두 번 부르니까

운율감이 느껴지잖아.

00:22:36.620 --> 00:22:39.450

태동 하는 것보다 태동 태동
운율감이 느껴지잖아요.

00:22:39.550 --> 00:22:42.243

반어적 어조를 활용해서
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.

00:22:42.343 --> 00:22:44.384

현실을 비판하고 있는
거 아니었어요.

00:22:44.484 --> 00:22:47.268

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
꿈을 엮을 수 있다면 좋겠다.

00:22:47.368 --> 00:22:49.887

그런 소망을 얘기하고
있는 것 뿐이었죠.

00:22:49.987 --> 00:22:53.004

반어적 어조도 없었고,
그다음에 현실에 대한

00:22:53.104 --> 00:22:55.726

비판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
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

00:22:55.826 --> 00:22:59.579

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
마무리하여 여운을 준다.

00:22:59.679 --> 00:23:01.482

불완전한 문장 마무리한
부분 볼까요?

00:23:01.582 --> 00:23:03.830

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.

00:23:03.930 --> 00:23:05.693

서술어로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죠.

00:23:05.793 --> 00:23:08.096

~한다면이라고 가정으로 끝났죠.

00:23:08.196 --> 00:23:12.524

그러니까 마지막에 뒤에 생략된 말은
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죠.

00:23:12.624 --> 00:23:17.086

그래, 그럼 좋겠구나라고 우리가
독자 입장에서 감동을 주거나

00:23:17.186 --> 00:23:20.065

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
있는 감동, 이런 뜻이거든.

00:23:20.165 --> 00:23:23.487

독자 입장에서 그런 걸 느낄 수

있는 거니까 여운을 주고 있다.

00:23:23.587 --> 00:23:24.638
적절합니다.

00:23:24.738 --> 00:23:28.217
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운을 준다고
하는 선택지는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.

00:23:28.317 --> 00:23:30.613
나는 여운 안 주는데,
너는 여운 주니?

00:23:30.713 --> 00:23:31.896
나도 안 주는데.

00:23:31.996 --> 00:23:33.083
출제자는 뭐라 그래?

00:23:33.183 --> 00:23:34.714
여운 주잖아, 그러니까
너희 틀렸어.

00:23:34.814 --> 00:23:36.387
이렇게 문제 풀기가 어렵거든요.

00:23:36.487 --> 00:23:38.329
그러니까 뭐냐면 불완전하잖아요.

00:23:38.429 --> 00:23:41.657
그러니까 뒤에 뭔가 남아 있어,
남아 있다는 게 여운이니까

00:23:41.757 --> 00:23:43.416
남아 있다는 거니까 여운이죠?

00:23:43.516 --> 00:23:45.672
그러니까 적절하다 이렇게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23:45.772 --> 00:23:48.516
수미상관 방법으로 당연히
안정감을 줄 수 있죠.

00:23:48.616 --> 00:23:51.347
위아래, 위아래 똑같이
나타나는 거니까요.

00:23:51.447 --> 00:23:55.480
윗글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시어에
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

00:23:55.580 --> 00:23:58.154
한번 골라봐라라고 되어 있는데.

00:23:58.254 --> 00:24:00.713
여기에서 꿈이라고 하는
것은 긍정적이잖아요.

00:24:00.813 --> 00:24:02.467
동그라미, 세모로 문제

풀 수 있다고 했어요.

00:24:02.567 --> 00:24:05.869

꿈은 (가)와 (나) 모두에서
현실 도피하고자 한다.

00:24:05.969 --> 00:24:09.229

현실 도피는 부정적이니까
동그라미를 세모로 설명했죠?

00:24:09.329 --> 00:24:10.886

적절하지 않아요.

00:24:10.986 --> 00:24:16.875

슬픔의 경우는 (나)보다는
(가)에서 민족적 한이다.

00:24:16.975 --> 00:24:20.658

아니죠, (나)가 민족적인 이야기였으니까
(가)에서 이거 틀렸죠.

00:24:20.758 --> 00:24:23.441

그리움의 경우 (가)보다는
(나)에서, 그렇죠.

00:24:23.541 --> 00:24:27.814

(나)에서 역사적인 전망이 나타나는
거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.

00:24:27.914 --> 00:24:30.589

겨울의 경우는, 겨울은
부정적이잖아요.

00:24:30.689 --> 00:24:34.030

(나)보다는 (가)에서 억압적
현실을 반영하는 거니까

00:24:34.130 --> 00:24:35.934

이건 (나)가 더 적절하겠죠.

00:24:36.034 --> 00:24:38.945

사랑의 경우 (가)보다는
(나)에서 개인적이다.

00:24:39.045 --> 00:24:41.803

개인적인 것은 바로
(가)에 해당하는 거니까

00:24:41.903 --> 00:24:47.024

보기 내용만 잘 파악하셔도 충분히
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.

00:24:47.124 --> 00:24:49.605

㉠~㉡에 대한 감상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을

00:24:49.705 --> 00:24:51.497

한번 골라봐라라고 얘기했는데.

00:24:51.597 --> 00:24:53.847

㉠을 보면 한 쪽의

비단이 될 수 있다면.

00:24:53.947 --> 00:24:55.856

비단이 되고 싶다는 거죠.

00:24:55.956 --> 00:24:58.533

그러니까 화자의 긍정적인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다, 적절하죠.

00:24:58.633 --> 00:25:01.661

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나타낸다.

00:25:01.761 --> 00:25:04.546

㉠ 추운 길목에서였으니까 부정적 상황 적절하죠.

00:25:04.646 --> 00:25:06.847

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답입니다.

00:25:06.947 --> 00:25:11.547

㉠과 ㉡은, ㉠은 아까 위에서 추운 길목이야, 세모 치죠.

00:25:11.647 --> 00:25:13.822

외롭고 긴 기다림이야, 세모죠.

00:25:13.922 --> 00:25:15.692

세모, 세모예요.

00:25:15.792 --> 00:25:18.430

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련이다, 시련 세모잖아요.

00:25:18.530 --> 00:25:20.278

그러니까 정답 2번도 적절하겠죠.

00:25:20.378 --> 00:25:25.174

㉢과 ㉣은, ㉢은 손을 주는 거고, 그윽한 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.

00:25:25.274 --> 00:25:28.014

내가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대하고 있다.

00:25:28.114 --> 00:25:29.477

연대가 뭔지 알아야죠.

00:25:29.577 --> 00:25:31.062

고대, 연대가 아니잖아요, 그렇지요?

00:25:31.162 --> 00:25:36.395

이런 유머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재개그가 중독이 굉장한가 봐요.

00:25:36.495 --> 00:25:37.532

갑니다.

00:25:37.632 --> 00:25:40.029

연대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같이 공감하고

00:25:40.129 --> 00:25:42.150
함께 한다는 거니까 적절하겠죠.

00:25:42.250 --> 00:25:45.815
㉡에서 표현된 행위가 ㉡에 나타난
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.

00:25:45.915 --> 00:25:46.962
㉡이 뭐니까?

00:25:47.062 --> 00:25:48.120
손을 쥐요.

00:25:48.220 --> 00:25:51.534
외롭고 긴 기다림을
해소해주는 거니까

00:25:51.634 --> 00:25:55.839
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내적
갈등을 오히려 해소해줄 수 있죠.

00:25:55.939 --> 00:25:56.929
외로워?

00:25:57.029 --> 00:25:59.208
내가 손 잡아 줄게,
외롭지 않을 거야.

00:25:59.308 --> 00:26:00.825
그러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.

00:26:00.925 --> 00:26:03.646
㉡에서 표현된 행위는, ㉡이 뭐죠?

00:26:03.746 --> 00:26:07.771
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,
㉡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.

00:26:07.871 --> 00:26:08.932
㉡이 뭔데요?

00:26:09.032 --> 00:26:11.610
한 쪽의 비단이 완성되는
과정이다, 당연하죠.

00:26:11.710 --> 00:26:14.893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26:14.993 --> 00:26:19.303
그다음 작품은 여러분,
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.

00:26:19.403 --> 00:26:24.564
관동별곡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
아마 많이 보셨을 작품입니다.

00:26:24.664 --> 00:26:31.385
혹시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제
강의 중에 고전문학의 모든 것

00:26:31.485 --> 00:26:32.750
강의가 있을 겁니다, 아마.

00:26:32.850 --> 00:26:36.562
거기에 보면 관동별곡 강의를
제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

00:26:36.662 --> 00:26:37.756
다 찍어봤어요.

00:26:37.856 --> 00:26:40.032
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
 좋을 것 같습니다.

00:26:40.132 --> 00:26:45.003
아니면 고1 내신 강의, 고1
필수 작품 이렇게 들어가 보면

00:26:45.103 --> 00:26:46.822
관동별곡 강의가 있을 거고요.

00:26:46.922 --> 00:26:50.285
그다음에 제 자료실에 보면
관동별곡 자료실이 있어요, 또.

00:26:50.385 --> 00:26:52.948
관동별곡 자료실이라고 해서
거기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

00:26:53.048 --> 00:26:55.187
그거 보시면 도움이
될 것 같습니다.

00:26:55.287 --> 00:26:58.834
그다음에 관동별곡하고
유한라산기라고 하면

00:26:58.934 --> 00:27:03.447
유한라산기는 뭐냐면
기행문이에요, 기행문.

00:27:03.547 --> 00:27:06.441
똑같이 기행문인데 (가) 작품은
조선 후기, 조선시대 때

00:27:06.541 --> 00:27:08.885
정철이니까 조선 선조 때죠.

00:27:08.985 --> 00:27:13.453
조선시대 때 정철이라고 하는
사람이 가사문학으로 썼다면

00:27:13.553 --> 00:27:17.330
(나) 같은 경우는 최익현이라고
하는 사람의 유한라산기라고 하면

00:27:17.430 --> 00:27:22.563
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
한라산 등반을 하고

00:27:22.663 --> 00:27:26.901

기행문 형식으로 쓴 거라고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27:27.001 --> 00:27:28.774
문제를 한번 볼까요?

00:27:28.874 --> 00:27:32.600
㉠~㉡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
것을 찾아라라고 얘기했는데.

00:27:32.700 --> 00:27:33.719
표현법이죠.

00:27:33.819 --> 00:27:36.995
반어적으로 표현했다, 불만을
우회적으로 나타냈다,

00:27:37.095 --> 00:27:38.642
자연현상에 비유하고 있다.

00:27:38.742 --> 00:27:41.516
이런 것들이 바로
표현상의 특징입니다.

00:27:41.616 --> 00:27:44.609
2번을 보면 (나)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27:44.709 --> 00:27:46.001
내용 일치 문제죠.

00:27:46.101 --> 00:27:47.700
거기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

00:27:47.800 --> 00:27:50.085
내용 일치 확인만 하시면
되는 문제였습니다.

00:27:50.185 --> 00:27:53.611
3번은 보기는 (가)
작품의 다른 부분입니다.

00:27:53.711 --> 00:27:57.992
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관동별곡
두 부분 읽고 나서 비교해 봐.

00:27:58.092 --> 00:27:59.117
이런 뜻이죠.

00:27:59.217 --> 00:28:02.977
그다음에 4번은 보기를 참고해서
(가)와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

00:28:03.077 --> 00:28:04.365
적절하지 않은 건데.

00:28:04.465 --> 00:28:05.805
보기를 잠깐 볼까요?

00:28:05.905 --> 00:28:10.145
선비들의 산수유람에는

와유와 원유가 있다.

00:28:10.245 --> 00:28:11.188
처음 봅니다.

00:28:11.288 --> 00:28:12.501
와유, 원유입니다.

00:28:12.601 --> 00:28:16.754
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
산수유람의 글을 감상하며

00:28:16.854 --> 00:28:19.923
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
방식으로 즐기는 거다.

00:28:20.023 --> 00:28:21.469
무슨 얘기일까요?

00:28:21.569 --> 00:28:22.748
직접 가보지 않은 거죠.

00:28:22.848 --> 00:28:24.649
직접 가보지 않은 게 와유입니다.

00:28:24.749 --> 00:28:27.760
그다음에 이와 달리 원유는
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서

00:28:27.860 --> 00:28:32.210
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혼치 않은
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

00:28:32.310 --> 00:28:33.846
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된다.

00:28:33.946 --> 00:28:39.076
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
커다란 기상, 기운, 뜻, 포부

00:28:39.176 --> 00:28:44.145
이런 것들이 바로 호연지기라고
하는 겁니다, 아시겠죠?

00:28:44.245 --> 00:28:48.127
그러면 이 작품을
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
00:28:48.227 --> 00:28:50.243
가볼게요.

00:28:50.343 --> 00:28:51.740
좀 어렵습니다, 여러분.

00:28:51.840 --> 00:28:54.199
비로봉 상상두의, 제일 꼭대기에.

00:28:54.299 --> 00:28:57.002
비로봉이 이제 금강산의
제일 꼭대기잖아요.

00:28:57.102 --> 00:29:02.345

비로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 보니
그 뒤신고, 해석이 중요하죠?

00:29:02.445 --> 00:29:05.308

올라 보니 이게 어떻게
해석되는지 잘 보세요.

00:29:05.408 --> 00:29:11.232

비로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 보니까
그 뒤신고, 그 누구입니까?

00:29:11.332 --> 00:29:12.984

올라 보니까 누가 있나 봐요.

00:29:13.084 --> 00:29:14.647

올라 보니까 그 누구입니까?

00:29:14.747 --> 00:29:15.660

어색하잖아요.

00:29:15.760 --> 00:29:17.439

올라 보니까 누가 있는 게 아니죠.

00:29:17.539 --> 00:29:21.725

여기에서 이 보니라고 하는 것은
애들아, 이어적기가 된 거예요.

00:29:21.825 --> 00:29:24.469

본 이 이런 뜻입니다.

00:29:24.569 --> 00:29:30.014

그러면 비로봉 제일 꼭대기에
올라 본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?

00:29:30.114 --> 00:29:32.026

올라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.

00:29:32.126 --> 00:29:35.582

절대적으로 올라 본 사람이 없을
거다,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

00:29:35.682 --> 00:29:38.586

물론 올라갔겠지만,
애가 못 올라갔거든요.

00:29:38.686 --> 00:29:41.258

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비로봉
제일 꼭대기에 못 올라갔거든요.

00:29:41.358 --> 00:29:44.562

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꼭대기에
올라 본 사람이 누구일까,

00:29:44.662 --> 00:29:46.436

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

00:29:46.536 --> 00:29:49.413

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낯뒀던고.

00:29:49.513 --> 00:29:52.174

동산과 태산은 둘 다 중국 산인데.

00:29:52.274 --> 00:29:54.703

동산과 태산을 비교하는
게 아니에요.

00:29:54.803 --> 00:29:57.922

동산과 이 비로봉 중에,
태산과 이 비로봉 중에

00:29:58.022 --> 00:30:00.780

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
이런 뜻입니다.

00:30:00.880 --> 00:30:02.152

노국 조븐 줄도.

00:30:02.252 --> 00:30:04.756

왜 동산, 태산이 나오냐면
공자와 관련되어 있거든요.

00:30:04.856 --> 00:30:09.174

공자가 이 산에 올라가서 내
뜻을 펼치기에는 이 천하가,

00:30:09.274 --> 00:30:11.410

천하가 거의 다 보이는
곳인가 봐요.

00:30:11.510 --> 00:30:14.393

이 천하가 너무나 좁다
이렇게 얘기했거든.

00:30:14.493 --> 00:30:17.270

그러니까 그 공자를 떠올리는
거죠, 이 정철이라는 사람은.

00:30:17.370 --> 00:30:18.403

볼게요.

00:30:18.503 --> 00:30:22.115

정철이 살았던 노국, 노나라가
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.

00:30:22.215 --> 00:30:25.308

우리는 그 노나라가
좁은지조차 몰라요.

00:30:25.408 --> 00:30:28.970

노나라가 넓다 좁다조차
우리가 판단 못 해.

00:30:29.070 --> 00:30:30.965

우리는 조선이라는 작은
나라에 있으니까.

00:30:31.065 --> 00:30:32.237

노나라는 중국 땅이잖아요.

00:30:32.337 --> 00:30:33.620

얼마나 크겠어요?

00:30:33.720 --> 00:30:36.657

그 노나라가 좁은 줄도
우리는 모르는데.

00:30:36.757 --> 00:30:39.532

넓거나 넓은 천하
어찌하여 적단 말인가.

00:30:39.632 --> 00:30:41.855

누가 한 말이냐면
공자가 한 말입니다.

00:30:41.955 --> 00:30:45.806

동산, 태산에 올라가서 내
뜻을 펼치기에는 너무 좁아

00:30:45.906 --> 00:30:46.939

이렇게 얘기한 거야.

00:30:47.039 --> 00:30:47.985

그런데 우리는 언제?

00:30:48.085 --> 00:30:50.646

노나라, 그 사람이 살았던
곳조차 모른단 말이야.

00:30:50.746 --> 00:30:53.876

천하는 더 알 수도
없겠죠, 당연히.

00:30:53.976 --> 00:31:01.385

어와 저 지위라고 하는
것은 경지 이런 뜻입니다.

00:31:01.485 --> 00:31:04.484

어와 저 경지를
어이하면 알 거이고.

00:31:04.584 --> 00:31:07.299

그 공자의 높은 경지를
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?

00:31:07.399 --> 00:31:10.599

내가 감히 모를 것
같다 이런 뜻입니다.

00:31:10.699 --> 00:31:14.344

오르지 못하거니, 보세요.

00:31:14.444 --> 00:31:18.901

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는 것이
고이할가, 이상할가 이런 뜻이거든요.

00:31:19.001 --> 00:31:23.146

여기에서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는
뭐냐면 비로봉에 오르지 못한다

00:31:23.246 --> 00:31:27.349

이런 것도 있고요, 또 하나는 공자의
높은 경지에 오르지 못하거니

00:31:27.449 --> 00:31:29.201
내려가는 것이 이상하겠어?

00:31:29.301 --> 00:31:32.628
저렇게 높은 산인데 내가 어떻게
올라가, 내려가도 괜찮아,

00:31:32.728 --> 00:31:34.628
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
않아 이런 뜻이고.

00:31:34.728 --> 00:31:37.110
공자의 저런 높은 경지를
어떻게 올라가,

00:31:37.210 --> 00:31:39.508
내가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
않아 이런 뜻이에요.

00:31:39.608 --> 00:31:42.938
그러니까 결국은 비로봉에 올라가지
않았다 이게 첫 번째고요.

00:31:43.038 --> 00:31:46.695
두 번째는 뭐냐면 공자의 높은 경지를
본받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.

00:31:46.795 --> 00:31:48.828
그다음 두 번째
여정으로 옮겨 볼게요.

00:31:48.928 --> 00:31:53.079
원통골 가난 길로, 가는
GO의 뜻이 아니고요.

00:31:53.179 --> 00:31:54.604
좁은 길로 이런 뜻입니다.

00:31:54.704 --> 00:31:59.583
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
너러바회, 넓은 바위가 화룡쇠,

00:31:59.683 --> 00:32:01.410
화룡소가 되었구나.

00:32:01.510 --> 00:32:04.380
연못이 되었어요, 화룡소라는
연못이 있었어.

00:32:04.480 --> 00:32:07.415
천 년 노룡이 굽이굽이
서려 있어서.

00:32:07.515 --> 00:32:09.016
천 년 노룡 밑줄 칠게요.

00:32:09.116 --> 00:32:11.897
굽이굽이 서려 있어서,
천 년 노룡 있습니다.

00:32:11.997 --> 00:32:13.383

그림 잘 못 그려요.

00:32:13.483 --> 00:32:15.767

노퉁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.

00:32:15.867 --> 00:32:19.011

이 노퉁의 원관념은 뭐냐면

이 화룡소의 노퉁이,

00:32:19.111 --> 00:32:21.299

화룡소를 보고 노퉁이라고

생각한 거야.

00:32:21.399 --> 00:32:23.871

그런데 이 노퉁이 누구냐면

조금 이따 알려줄게요.

00:32:23.971 --> 00:32:27.467

천 년 노퉁이 굽이굽이 서려

있어 주야로 흘러내려,

00:32:27.567 --> 00:32:30.267

밤낮으로 흘러내려서

창해에 이어져 있으니.

00:32:30.367 --> 00:32:33.031

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

창해에 이어져 있나 봐요.

00:32:33.131 --> 00:32:35.900

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으니,

그다음 어렵습니다.

00:32:36.000 --> 00:32:39.669

풍운을 언제 어더, 애가 이제

하늘로 승천할 거 아니에요.

00:32:39.769 --> 00:32:47.785

풍운을 언제 얻어서 삼일우를 디런난다,

3일 동안 비를 내리려고 하느냐.

00:32:47.885 --> 00:32:51.645

아주 흡족한 비를 내리려고 하느냐.

00:32:51.745 --> 00:32:55.693

음애에 이온 풀들을,

음애에 이온 풀들은.

00:32:55.793 --> 00:33:01.041

음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

벼랑, 이런 뜻이에요.

00:33:01.141 --> 00:33:03.425

음지가 있는 벼랑, 이런 뜻입니다.

00:33:03.525 --> 00:33:07.038

거기에 이온 풀은, 시든 풀들을

다 살려내려무나 이런 뜻이에요.

00:33:07.138 --> 00:33:09.646

이게 무슨 얘기냐면,
이쪽으로 올게요.

00:33:09.746 --> 00:33:13.591

음애에 시든 풀이라고 하면
보통 이제 풀이라고 하는 게

00:33:13.691 --> 00:33:17.636

상징적 의미가 뭐가 있냐면
백성을 뜻하는 거거든요.

00:33:17.736 --> 00:33:25.390

그러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아주
그늘진 곳에 있는 풀들이에요.

00:33:25.490 --> 00:33:27.782

그럼 그늘진 곳에 있는
그 풀이라고 하는 것은

00:33:27.882 --> 00:33:31.904

바로 무슨 풀을 뜻하는
거냐면 도탄에 빠진,

00:33:32.004 --> 00:33:34.662

아주 어려움에 처한
백성을 뜻하는 거죠.

00:33:34.762 --> 00:33:38.539

즉, 도탄에 빠진 백성들입니다.

00:33:38.639 --> 00:33:44.975

그러면 3일 동안 비를 내리면 애네가
다 살아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

00:33:45.075 --> 00:33:48.231

그러면 삼일우는 바로 뭐냐면
선정, 어렵습니다.

00:33:48.331 --> 00:33:51.105

선정, 좋은 정치를
배풀겠다는 거죠.

00:33:51.205 --> 00:33:57.289

또는 임금의 은총을 내리면
도탄에 빠진 백성들

00:33:57.389 --> 00:33:59.023

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33:59.123 --> 00:34:02.978

그러면 풍운을 어더라고 하는 것은
내가 선정을 베푼다면 뭐가 필요해요?

00:34:03.078 --> 00:34:05.086

임금의 인정을 받아야죠.

00:34:05.186 --> 00:34:07.699

내가 인정을 받아야 내가 능력을
펼칠 수 있을 거 아니야?

00:34:07.799 --> 00:34:11.203

그럼 결국 이 풍운을 얻어서
삼일우를 내리는 것은

00:34:11.303 --> 00:34:12.085
천 년 노룡이죠.

00:34:12.185 --> 00:34:13.116
노룡이 바로 누구야?

00:34:13.216 --> 00:34:15.400
정철 자신, 화자를
나타내고 있는 거예요.

00:34:15.500 --> 00:34:20.333
정철이라는 사람이 천 년
노룡이 하늘로 승천하잖아.

00:34:20.433 --> 00:34:24.221
풍운 얻어서 삼일우 내려서 음애에
시든 풀을 다 살려냈으면 좋겠다

00:34:24.321 --> 00:34:25.453
이렇게 얘기하거든.

00:34:25.553 --> 00:34:26.648
내가 뭘 하고 싶어?

00:34:26.748 --> 00:34:28.979
애민정신 하고 싶은 거야.

00:34:29.079 --> 00:34:33.104
백성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, 애민
정신을 갖고 싶은 거죠, 애민 정신.

00:34:33.204 --> 00:34:35.929
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,
이걸 갖겠다는 뜻입니다.

00:34:36.029 --> 00:34:38.011
아주 엄청난 작품이에요.

00:34:38.111 --> 00:34:40.917
음애에 이온 풀을 다 살려내려무나.

00:34:41.017 --> 00:34:47.094
그다음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
너머 디어, 넘어 들어가서.

00:34:47.194 --> 00:34:49.781
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넘어
들어가서, 이거는 여정입니다.

00:34:49.881 --> 00:34:52.588
금강산을 지금 기행하고 있거든요.

00:34:52.688 --> 00:34:55.160
본사 첫 번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.

00:34:55.260 --> 00:34:57.990
외나무 썩은 다리
불정대에 올라하니.

00:34:58.090 --> 00:35:01.734

불정대라는 곳에 올라가니,
이것도 정말 대단합니다.

00:35:01.834 --> 00:35:05.567

천심 절벽을 반공에 세워
두고, 허공에 세워 두고.

00:35:05.667 --> 00:35:07.629

절벽 반공에 세워 두고.

00:35:07.729 --> 00:35:11.457

은하수 한 구비를, 한
부분을 촌촌이 버혀 내어.

00:35:11.557 --> 00:35:14.222

은하수가 이렇게 있잖아요.

00:35:14.322 --> 00:35:15.855

은하수가 이렇게 있잖아?

00:35:15.955 --> 00:35:18.538

거기에서 한 구비를
마디마디 베어 내서.

00:35:18.638 --> 00:35:23.713

은하수를 이렇게 베어
냈어요, 은하수를 잘라내서

00:35:23.813 --> 00:35:29.061

실같이 풀터이서, 실처럼 풀어서
뵈라고 하는 건 삼베예요, 삼베.

00:35:29.161 --> 00:35:30.308

삼베 알죠?

00:35:30.408 --> 00:35:31.570

모시, 삼베 알죠?

00:35:31.670 --> 00:35:32.950

베처럼 걸어 놓았으니.

00:35:33.050 --> 00:35:33.954

무슨 얘기일까?

00:35:34.054 --> 00:35:39.173

은하수를 잘라내서 여기다가
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.

00:35:39.273 --> 00:35:41.886

실처럼 풀어 놓는 거야.

00:35:41.986 --> 00:35:44.969

그러니까 실처럼 풀어서 뭘처럼?

00:35:45.069 --> 00:35:47.435

뵈라고 하는 게 삼베야,
삼베처럼 걸어 놓았대.

00:35:47.535 --> 00:35:50.038

이게 뭘 뜻할까, 애들아?

00:35:50.138 --> 00:35:54.025

허공에 은하수가 내리고
있는 것 같아, 은하수가.

00:35:54.125 --> 00:35:56.021

여러분, 폭포를 뜻하는 겁니다.

00:35:56.121 --> 00:35:57.521

정말 대단하죠?

00:35:57.621 --> 00:36:02.442

은하수, 실, 뵈라고 하는 게 전부
다 폭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.

00:36:02.542 --> 00:36:04.614

특히 십이폭포예요.

00:36:04.714 --> 00:36:08.206

십이폭포라고 해서 폭포를 비유적으로
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

00:36:08.306 --> 00:36:09.524

정말 대단합니다.

00:36:09.624 --> 00:36:12.051

정철은 정말 대단합니다.

00:36:12.151 --> 00:36:14.217

이거 참, 저는
대단하다고 느끼는데.

00:36:14.317 --> 00:36:17.037

그럼 질문, 실처럼 풀어서
삼베처럼 걸어봤다는 얘기는

00:36:17.137 --> 00:36:20.474

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실처럼
보일까요, 삼베처럼 보일까요?

00:36:20.574 --> 00:36:22.706

가까이에서 봤을 때는
실처럼 보이겠죠.

00:36:22.806 --> 00:36:25.663

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실처럼
보일 거 아니야, 그렇지?

00:36:25.763 --> 00:36:28.640

그러면 실이라고 하는 게
바로 뭘 뜻하는 거냐?

00:36:28.740 --> 00:36:32.213

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근경입니다.

00:36:32.313 --> 00:36:34.267

가까이에서 본 근경이고요.

00:36:34.367 --> 00:36:38.715

삼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멀리서

본 원경이 되겠죠, 원경.

00:36:38.815 --> 00:36:40.797
근경과 원경입니다.

00:36:40.897 --> 00:36:45.009
실처럼 풀어서 뵈처럼
걸어 놓았으니.

00:36:45.109 --> 00:36:47.862
도경에는 열두 구비야, 도경.

00:36:47.962 --> 00:36:50.842
그림책에서는 열두 구비,
십이폭포라고 했는데.

00:36:50.942 --> 00:36:52.773
내 보매난 여러히라.

00:36:52.873 --> 00:36:54.975
내가 직접 보니까 여러 개야.

00:36:55.075 --> 00:36:56.442
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 여러 개인
것 같아, 내가 보니까 여러 개야.

00:36:56.542 --> 00:37:02.837
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십이폭포,
12개의 폭포가 있는 게 아니라

00:37:02.937 --> 00:37:05.767
옆에 물줄기가 또 있거나
이럴 거 아니에요.

00:37:05.867 --> 00:37:07.519
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 개다.

00:37:07.619 --> 00:37:10.219
이적선이 이제 이서, 이태백입니다.

00:37:10.319 --> 00:37:11.924
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죠.

00:37:12.024 --> 00:37:14.323
이제 있어서 고택,
다시 이런 뜻입니다.

00:37:14.423 --> 00:37:17.230
다시 의논하게 되면,
다시 의논하자.

00:37:17.330 --> 00:37:22.057
경치가 좋은 곳이 어디인지 너랑 나랑
다시 한번 의논해보자 하게 되면

00:37:22.157 --> 00:37:24.891
여산이 여기도곤, 여산은 뭘예요?

00:37:24.991 --> 00:37:29.597
여산은 중국에 있는 산인데 여기도곤,
여기보다 낫다는 말 못하려니.

00:37:29.697 --> 00:37:32.109

더 좋다는 말 못할 것
같다 이런 뜻이야.

00:37:32.209 --> 00:37:35.446

여기가 훨씬 더 아름답다
이런 뜻이에요, 괜찮아요?

00:37:35.546 --> 00:37:38.808

여기에서 이제 본사 1이 끝났고요.

00:37:38.908 --> 00:37:41.273

산중을 매양 보라,
산을 매번 보겠느냐.

00:37:41.373 --> 00:37:44.487

동해로 가자잖아, 이제
동해바다 쪽으로 가는 거죠.

00:37:44.587 --> 00:37:49.751

남여 완보하야, 남여는 뭐냐면
뚜껑이 없는 가마예요.

00:37:49.851 --> 00:37:52.395

남여 완보하야 산영루에 올라하니.

00:37:52.495 --> 00:37:57.342

산영루라는 누각에 오르니
영룡벽계와, 영룡한 벽계 시냇물과

00:37:57.442 --> 00:38:02.326

수성제도는 시끄럽게 울고
있는 여러 마리의 새들은

00:38:02.426 --> 00:38:05.507

이별을 원망하는 듯,
이런 뜻입니다.

00:38:05.607 --> 00:38:07.709

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아.

00:38:07.809 --> 00:38:10.616

감정이입일 수 있죠, 마지막에.

00:38:10.716 --> 00:38:13.578

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관동별곡에
대한 내용이었습니다.

00:38:13.678 --> 00:38:16.713

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을
보니까 그다음 나오는 내용은

00:38:16.813 --> 00:38:19.194

유한라산기라고 하는 겁니다.

00:38:19.294 --> 00:38:22.398

유 놀다, 한라산에서 노는
것을 기록하는 거죠.

00:38:22.498 --> 00:38:24.530

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

00:38:24.630 --> 00:38:25.718
가볼까요, 여러분?

00:38:25.818 --> 00:38:28.543
얼마 후 검은 안개가
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

00:38:28.643 --> 00:38:29.975
산등성이를 휘감았다.

00:38:30.075 --> 00:38:32.408
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,
이상하다고 여겼지만

00:38:32.508 --> 00:38:35.687
이곳까지 와서 한라산의
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

00:38:35.787 --> 00:38:39.556
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 길의
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

00:38:39.656 --> 00:38:41.875
엿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
것이 되어, 무슨 얘기에요?

00:38:41.975 --> 00:38:46.524
산을 만드는데 한 삽을 뜨지 못해서
산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은

00:38:46.624 --> 00:38:47.645
이런 거죠.

00:38:47.745 --> 00:38:51.180
산에 가서 가장 핵심을
보지 못하고 오는 거다,

00:38:51.280 --> 00:38:53.415
가장 핵심을 놓치는 거다
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

00:38:53.515 --> 00:38:57.284
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
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

00:38:57.384 --> 00:38:59.945
거기 갔다가 그것도
못 보고 왔어요?

00:39:00.045 --> 00:39:04.974
날씨가 뿔 검은 안개가 몰려오고
산등성이 휘감으니까 내려갔다

00:39:05.074 --> 00:39:08.595
그러면 거기 한라산까지 와서,
한라산 제주도에 있잖아요.

00:39:08.695 --> 00:39:11.448
제주도까지 와서 섬에,

옛날에는 섬이라고 하는 곳에

00:39:11.548 --> 00:39:15.091

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옛날 조선시대
후기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.

00:39:15.191 --> 00:39:18.900

거기 가서 웃음거리나 되지
않을까 걱정했다는 거죠.

00:39:19.000 --> 00:39:23.408

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
전진해서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

00:39:23.508 --> 00:39:28.210

당도하여 굽어보니까 상봉이 여기에
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

00:39:28.310 --> 00:39:30.478

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
바로 백록담이었다.

00:39:30.578 --> 00:39:32.169

맨 꼭대기에 올라갔나 봐요.

00:39:32.269 --> 00:39:33.952

주위가 1리 남짓하고,
1리가 뭐야?

00:39:34.052 --> 00:39:36.790

10리가 4km니까 1리가
400m 정도 되겠네.

00:39:36.890 --> 00:39:38.006

저도 안 가봤습니다.

00:39:38.106 --> 00:39:39.426

저는 산 이런 데 안 가요.

00:39:39.526 --> 00:39:40.972

뭐 자랑이라고 얘기해.

00:39:41.072 --> 00:39:44.072

다시 어차피 내려올 거 왜
올라갑니까, 이런 생각이죠.

00:39:44.172 --> 00:39:48.459

여태까지 제가 갔던 데 중에 가장
높았던 게 어디냐면 지리산 노고단

00:39:48.559 --> 00:39:49.705

한 번 가봤습니다.

00:39:49.805 --> 00:39:51.842

거기까지 자동차가 가거든요.

00:39:51.942 --> 00:39:55.031

그래서 거기 한 번 가봤고,
설악산의 권금성이라고 있어요.

00:39:55.131 --> 00:39:56.612

해발 한 800m, 900m.

00:39:56.712 --> 00:39:57.999
그래도 힘들잖아요, 그렇죠?

00:39:58.099 --> 00:39:59.101
거기까지 가봤습니다.

00:39:59.201 --> 00:40:00.677
케이블카가 거기까지 가더라고요.

00:40:00.777 --> 00:40:02.790
산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정말.

00:40:02.890 --> 00:40:04.607
그런데 백록담 갔다는 건 대단하죠?

00:40:04.707 --> 00:40:09.427
제주도 한라산 거기도 엄청나게
가파라서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다가

00:40:09.527 --> 00:40:11.648
계단을 이렇게 딱 보니까
엄청 많더라고요.

00:40:11.748 --> 00:40:13.279
그래서 안 가고 포기했습니다.

00:40:13.379 --> 00:40:17.471
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
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.

00:40:17.571 --> 00:40:21.976
홍수가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
않는데, 얇은 곳은 무릎에.

00:40:22.076 --> 00:40:24.226
눈으로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.

00:40:24.326 --> 00:40:28.433
얇은 곳은 무릎에, 깊은 곳은
허리에 찼으며 맑고 깨끗하여

00:40:28.533 --> 00:40:31.951
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
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.

00:40:32.051 --> 00:40:34.008
그만큼 백록담이 아름다웠다는 거죠.

00:40:34.108 --> 00:40:36.910
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
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

00:40:37.010 --> 00:40:39.144
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.

00:40:39.244 --> 00:40:40.398
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.

00:40:40.498 --> 00:40:42.654

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것
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.

00:40:42.754 --> 00:40:47.130

석벽에 매달려서 백록담을
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

00:40:47.230 --> 00:40:50.073

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.

00:40:50.173 --> 00:40:54.086

일행은 모두 지쳐서, 그 지칠
거 왜 올라가니, 그렇죠?

00:40:54.186 --> 00:40:57.287

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
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

00:40:57.387 --> 00:40:59.644

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.

00:40:59.744 --> 00:41:01.709

그러나 따라오는 자는
겨우 세 명뿐이었다.

00:41:01.809 --> 00:41:03.087

저 같은 사람인가 보죠?

00:41:03.187 --> 00:41:05.200

저는 아예 발을 딛지 않습니다,
위로 올라가는 거.

00:41:05.300 --> 00:41:08.364

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,
최고봉 올라갔나 봐, 애는.

00:41:08.464 --> 00:41:11.934

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
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

00:41:12.034 --> 00:41:14.703

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,
좌로는 부상을 돌아보고.

00:41:14.803 --> 00:41:17.429

부상은 해와 달이 뜨는
곳을 부상이라고 합니다.

00:41:17.529 --> 00:41:20.463

반대말은 함지라고 합니다, 해와
달이 지는 곳이라고 하죠.

00:41:20.563 --> 00:41:24.384

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,
남으로는 소주와, 소주?

00:41:24.484 --> 00:41:25.949

우리가 알고 있는 그
소주가 아니죠.

00:41:26.049 --> 00:41:27.690

항주, 중국 쪽이겠죠.

00:41:27.790 --> 00:41:30.220
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.

00:41:30.320 --> 00:41:32.798
그리고 웅기중기 널려 있는 섬들이
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

00:41:32.898 --> 00:41:34.636
작은 것은 달걀 같아

00:41:34.736 --> 00:41:36.951
놀랍고 괴이한 것들이
천태만상이었다.

00:41:37.051 --> 00:41:38.835
다양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.

00:41:38.935 --> 00:41:41.876
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
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

00:41:41.976 --> 00:41:43.544
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.

00:41:43.644 --> 00:41:45.182
아까 공자였잖아요, 그렇죠?

00:41:45.282 --> 00:41:46.755
맹자도 그런 말 했나 봐요.

00:41:46.855 --> 00:41:48.983
공자 맞습니다, 여러분
제가 착각한 게 아닙니다.

00:41:49.083 --> 00:41:53.327
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
가히 상상할 수 있다.

00:41:53.427 --> 00:41:55.950
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
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

00:41:56.050 --> 00:41:58.577
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
다스리고 신선이 되어

00:41:58.677 --> 00:42:02.637
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
적벽에서만, 적벽가를 만들었거든요.

00:42:02.737 --> 00:42:04.957
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.

00:42:05.057 --> 00:42:06.714
그만큼 경치가 아름답다는 겁니다.

00:42:06.814 --> 00:42:09.958
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
축융봉을 내려온다는 주자의,

00:42:10.058 --> 00:42:12.784

참 아는 거 많아서 잘난
척하는 것 같죠, 그렇죠?

00:42:12.884 --> 00:42:18.317

주자의 시구를 읊으며,
선생님이 목이 메인다.

00:42:18.417 --> 00:42:23.142

누가 힘든데 백록담 내려오면서
낭랑하게 읊조리며.

00:42:23.242 --> 00:42:25.485

참 옛날 사람들 대단합니다, 진짜.

00:42:25.585 --> 00:42:28.686

그만큼 이제 운치가 있고,
되게 뭐라 그러냐?

00:42:28.786 --> 00:42:32.079

그런데 요새 이런 사람 있으면
허세 같지 않니, 애들아?

00:42:32.179 --> 00:42:37.356

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
옛 시인들이 말이야

00:42:37.456 --> 00:42:39.605

이러면서 내려오면 되게
허세 같잖아요, 그렇죠?

00:42:39.705 --> 00:42:42.257

그런데 멋있었습니다, 옛날에는
얼마나 멋있었겠어요.

00:42:42.357 --> 00:42:46.144

백록담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
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놓았다.

00:42:46.244 --> 00:42:50.067

그러니까 이게 뭐냐면
하인들이 밥을 지어놓았으니까

00:42:50.167 --> 00:42:52.711

편하게 이렇게 갔다 오는 거죠.

00:42:52.811 --> 00:42:55.394

금수저 아니에요, 이거?

00:42:55.494 --> 00:42:58.007

제가 너무 좀 비관적으로
수업을 하나요?

00:42:58.107 --> 00:42:59.406

갑니다.

00:42:59.506 --> 00:43:00.622

지문 소화제.

00:43:00.722 --> 00:43:02.942

(가)의 화자는 금강산을
유람하고 어디로 이동했습니까?

00:43:03.042 --> 00:43:05.061
바다로 이동했습니다,
바다 이동했고요.

00:43:05.161 --> 00:43:06.335
동해 바다입니다.

00:43:06.435 --> 00:43:09.309
(나)에서 글쓴이는 홀로 한라산
정상에 올랐다 그랬는데.

00:43:09.409 --> 00:43:11.254
서너 명 정도 따라왔다면서요, X.

00:43:11.354 --> 00:43:14.424
(가)와 (나) 모두 여정에 따라
작품을 전개하고 있다, 맞습니다.

00:43:14.524 --> 00:43:16.884
둘 다 기행문 형식을 갖고 있죠.

00:43:16.984 --> 00:43:20.942
1번, ㉠~㉢에 대한 이해로
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.

00:43:21.042 --> 00:43:22.335
㉠,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43:22.435 --> 00:43:24.929
㉠, 노국 조분 줄도
우리는 모른대요.

00:43:25.029 --> 00:43:28.862
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
지식을 가지고 있음을

00:43:28.962 --> 00:43:31.546
반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?

00:43:31.646 --> 00:43:32.722
전혀 아니죠.

00:43:32.822 --> 00:43:36.554
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
많다 이런 뜻입니다.

00:43:36.654 --> 00:43:38.215
그러니까 이걸 절대 아니고요.

00:43:38.315 --> 00:43:39.426
㉡ 볼까요?

00:43:39.526 --> 00:43:41.632
어와 더 디위를
어이하면 알 거이고.

00:43:41.732 --> 00:43:45.121
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

지위에 오르지 못한 데에 대한

00:43:45.221 --> 00:43:47.488

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나고
있다, 아닙니다.

00:43:47.588 --> 00:43:53.097

그다음에 ㉔ 보시면 ㉔은 풍운을 언제
얻어 삼일우를 내리려고 하는가.

00:43:53.197 --> 00:43:56.565

자신에게 험난한 여정이 다가오고
있음을 자연 현상, 아닙니다.

00:43:56.665 --> 00:44:00.602

모든 걸 다 살려내고 싶다
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겠죠.

00:44:00.702 --> 00:44:03.349

㉔, 마하연 묘길상
안문채 넘어 들어가서.

00:44:03.449 --> 00:44:06.871

열거,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
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해서,

00:44:06.971 --> 00:44:08.160

최소화했어.

00:44:08.260 --> 00:44:11.580

마하연 갔다가 묘길상 갔다가
안문채 넘어 들어갔다가.

00:44:11.680 --> 00:44:13.880

이 서술어들이 하나도
없잖아요, 거의 없죠?

00:44:13.980 --> 00:44:16.577

그러니까 여정을 압축적으로
표현하고 있다, 맞죠.

00:44:16.677 --> 00:44:17.978

정답 4번이네요.

00:44:18.078 --> 00:44:20.221

이동하는 모습을
과장되게 묘사했습니까?

00:44:20.321 --> 00:44:23.726

남녀완보 천천히 걷고 있는데,
그게 과장된 표현은 아니죠?

00:44:23.826 --> 00:44:26.187

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
하는 게 아닙니다.

00:44:26.287 --> 00:44:27.501

2번 볼게요.

00:44:27.601 --> 00:44:30.187

(나)에 대한 설명으로

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.

00:44:30.287 --> 00:44:31.636
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.

00:44:31.736 --> 00:44:33.653
1번,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죠.

00:44:33.753 --> 00:44:35.154
검은 안개가 물려든다 그랬어요.

00:44:35.254 --> 00:44:37.182
등정을 계속하려는
이유가 나타나 있다.

00:44:37.282 --> 00:44:38.163
왜?

00:44:38.263 --> 00:44:40.890
갔다 내려가면 쪽팔리니까
그게 아니고요.

00:44:40.990 --> 00:44:45.970
마지막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
생각으로 올라간 거니까요.

00:44:46.070 --> 00:44:49.038
쪽팔린다, 이런 것도
비속어인데, 그렇죠?

00:44:49.138 --> 00:44:51.423
그런데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
제가 그냥 쓴 겁니다, 아시겠죠?

00:44:51.523 --> 00:44:54.709
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
추가해서 백록담의 모습을

00:44:54.809 --> 00:44:56.040
나타내고 있다.

00:44:56.140 --> 00:44:59.788
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면 아까
1리 정도 된다고 했고,

00:44:59.888 --> 00:45:01.644
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.

00:45:01.744 --> 00:45:05.765
백록담의 모습을 주관적으로
나타내는 것도 있었습시다.

00:45:05.865 --> 00:45:07.891
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
있었음을 밝혀서

00:45:07.991 --> 00:45:09.671
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나타냈다.

00:45:09.771 --> 00:45:11.798
따라오는 사람이 세 명밖에

없었다 그랬으니까.

00:45:11.898 --> 00:45:14.794
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
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

00:45:14.894 --> 00:45:16.062
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.

00:45:16.162 --> 00:45:20.419
즉, 맨 마지막에 최고봉에서 내려올
때 밑에 두 번째 줄밖에 없어요.

00:45:20.519 --> 00:45:23.492
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
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

00:45:23.592 --> 00:45:27.098
백록담가로 되돌아오니
하인들이 밥을 지어놓았다

00:45:27.198 --> 00:45:29.734
이렇게만 얘기했으니까
등정 과정에 비해서,

00:45:29.834 --> 00:45:32.274
등정 과정은 처음부터 어디까지야?

00:45:32.374 --> 00:45:36.186
저기 B 바로 밑에 부분
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

00:45:36.286 --> 00:45:37.596
등정 과정이니까요.

00:45:37.696 --> 00:45:38.850
등정은 올라간다는 뜻이죠?

00:45:38.950 --> 00:45:41.774
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,
시구 낭송했잖아요, 그렇죠?

00:45:41.874 --> 00:45:44.038
등정 과정에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,

00:45:44.138 --> 00:45:45.952
무슨 일행들 사이에 왜
갈등이 있었니, 애들아?

00:45:46.052 --> 00:45:49.556
상상력이 이렇게 많은 선택지는
처음 봤습니다.

00:45:49.656 --> 00:45:51.699
틀렸죠.

00:45:51.799 --> 00:45:53.395
보기는 (가) 작품의
다른 부분이다.

00:45:53.495 --> 00:45:57.427

보기와 [A], [B]를 비교한 내용으로
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.

00:45:57.527 --> 00:46:01.323

보기와 [A],
[B]를 비교하합니다.

00:46:01.423 --> 00:46:03.844

보기가, 여기 [A],
[B]가 저기 앞에 있군요.

00:46:03.944 --> 00:46:09.179

보기를 보니까 이거는
기본적으로 여러분 관동별곡을

00:46:09.279 --> 00:46:12.344

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배경지식에
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, 여러분.

00:46:12.444 --> 00:46:16.309

천근을 못내 보와, 하늘
끝을 끝내 못 봤어요.

00:46:16.409 --> 00:46:20.402

망양정의 올은말이, 말이 올랐다는
게 아니라 오르니 이런 뜻입니다.

00:46:20.502 --> 00:46:22.855

제가 생각할 때는 오르니
이거를 올은말이,

00:46:22.955 --> 00:46:24.669

글자수 때문에 이렇게
쓴 것 같습니다.

00:46:24.769 --> 00:46:27.159

바다 밖은 하늘이니
하늘 밖은 무엇인가.

00:46:27.259 --> 00:46:29.399

너무 아득해, 너무 끝없어.

00:46:29.499 --> 00:46:32.172

가뜩이나 노한 고래
뉘라서 놀내관대.

00:46:32.272 --> 00:46:33.587

누가 놀라게 했기에?

00:46:33.687 --> 00:46:37.148

여러분, 여기에 동해 바다에
가면 고래 볼 수 있죠?

00:46:37.248 --> 00:46:37.843

본 적 있나요?

00:46:37.943 --> 00:46:39.008

고래 없습니다.

00:46:39.108 --> 00:46:40.279

여기 고래 아니에요, 고래 없어요.

00:46:40.379 --> 00:46:42.691

제가 고향이 강릉인데
고래 없습니다.

00:46:42.791 --> 00:46:43.914

못 봤어요, 한 번도 못 봤어요.

00:46:44.014 --> 00:46:45.511

물론 어딘가에 있겠지만.

00:46:45.611 --> 00:46:48.484

여기에서 고래는 뭘 뜻하는
거냐면 파도를 뜻하는 겁니다.

00:46:48.584 --> 00:46:50.366

가뜩이나 노란 고래
뉘라서 놀내판대.

00:46:50.466 --> 00:46:53.975

누가 놀라기에 불거니 뿔거니
어즈러이 구난디고.

00:46:54.075 --> 00:46:57.291

즉, 다시 말하면 파도가 어지럽게
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.

00:46:57.391 --> 00:47:00.607

은산을 꺾어내어, 은산
역시 파도입니다.

00:47:00.707 --> 00:47:04.564

은산을, 산이 이렇게 파도 치는
게 은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.

00:47:04.664 --> 00:47:08.012

은산을 깎아 내어 육합의, 육합
온 세상에 내리는 것 같아요.

00:47:08.112 --> 00:47:10.478

산이 이렇게 내리는 것
같아요, 파도가.

00:47:10.578 --> 00:47:14.129

오월 장천의 백설은 무슨 일고.

00:47:14.229 --> 00:47:17.872

백설, 우리 강원도 강릉 같은
경우는 5월에도 좀 춥거든요.

00:47:17.972 --> 00:47:19.173

그래서 백설이 내리죠, 맞아요?

00:47:19.273 --> 00:47:20.422

절대 아닙니다.

00:47:20.522 --> 00:47:23.027

여기에서 오월이라고
하면 음력 5월이에요.

00:47:23.127 --> 00:47:25.484

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
6월 정도 됩니다.

00:47:25.584 --> 00:47:27.563
왜 미쳤다고 눈, 백설이 오겠어요?

00:47:27.663 --> 00:47:28.685
아닙니다.

00:47:28.785 --> 00:47:31.033
백설도 역시 마찬가지로
파도를 뜻합니다.

00:47:31.133 --> 00:47:34.888
고래, 은산, 백설
전부 다 파도죠.

00:47:34.988 --> 00:47:38.509
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
걸 골라라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47:38.609 --> 00:47:42.723
A와 보기 모두 자연이
시간의 흐름에 따라서

00:47:42.823 --> 00:47:44.660
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.

00:47:44.760 --> 00:47:48.391
[A] 부분은 시간의 흐름이 없죠.

00:47:48.491 --> 00:47:50.848
[A] 부분은 시간의
흐름이 절대 없었어요.

00:47:50.948 --> 00:47:52.017
왜?

00:47:52.117 --> 00:47:54.915
불정대 올라가니까 시간에
딱 멈춰 있고,

00:47:55.015 --> 00:47:57.694
그다음에 폭포의 모습을 아름답게
그냥 묘사한 것뿐이잖아요.

00:47:57.794 --> 00:48:00.386
그러니까 시간이 변화된 게 없죠.

00:48:00.486 --> 00:48:04.637
그다음에 보기도 역시
마찬가지로,

00:48:04.737 --> 00:48:07.934
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풍경을
묘사하고 있잖아요.

00:48:08.034 --> 00:48:10.997
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멈춘 거예요,
멈추고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.

00:48:11.097 --> 00:48:13.003
그러니까 둘 다 틀렸네요.

00:48:13.103 --> 00:48:14.025
2번 볼까요.

00:48:14.125 --> 00:48:19.686
[A]는 지상의 자연물을
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있다.

00:48:19.786 --> 00:48:22.284
지상의 자연물을 천문
현상에 비유하고 있고.

00:48:22.384 --> 00:48:25.388
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
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.

00:48:25.488 --> 00:48:26.954
이게 좀 헷갈린다.

00:48:27.054 --> 00:48:33.002
다시, [A]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
자연물을, 지상의 자연물은 폭포죠?

00:48:33.102 --> 00:48:38.849
그 폭포를 은하수에 비유하고
있다, 가능합니다, 이거는.

00:48:38.949 --> 00:48:41.442
폭포라고 하는 것을
은하수에 비유한 거니까요.

00:48:41.542 --> 00:48:44.161
보기는 천문 현상,
보기가 아까 뭐였죠?

00:48:44.261 --> 00:48:47.634
천문 현상을 지상의
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.

00:48:47.734 --> 00:48:50.260
천문 현상을 비유하고
있는 게 아니라 뭘?

00:48:50.360 --> 00:48:51.646
파도잖아요, 파도.

00:48:51.746 --> 00:48:54.411
파도는 천문 현상이라고, 하늘에
있는 현상이 아니잖아요.

00:48:54.511 --> 00:48:56.383
그러니까 2번은 틀렸네요.

00:48:56.483 --> 00:48:57.720
3번 볼까요?

00:48:57.820 --> 00:49:00.846
3번은 [B]와 보기는 모두
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

00:49:00.946 --> 00:49:02.646
자연의 냉혹함을 나타내고 있다.

00:49:02.746 --> 00:49:07.460
[B]에서는, 그런데 이거는
모두 인간의 접근을

00:49:07.560 --> 00:49:09.388
허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
올라갔잖아요, 그렇죠?

00:49:09.488 --> 00:49:12.864
그러니까 [B] 부분 같은 경우도
뒤나면 왼쪽에 한라산 최고봉에서

00:49:12.964 --> 00:49:16.088
본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으니까
접근 허용하지 않은 게 아니죠.

00:49:16.188 --> 00:49:17.685
올라간 거죠, 결국은.

00:49:17.785 --> 00:49:22.388
그다음에 3번, 보기도 마찬가지로
냉혹함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

00:49:22.488 --> 00:49:25.142
[B]에서는 자연물을
의인화하여 제시했다.

00:49:25.242 --> 00:49:26.811
[B]에서는 자연물을
의인화하고 있다?

00:49:26.911 --> 00:49:28.547
[B]에서 자연물이
의인화된 게 뭐가 있니?

00:49:36.266 --> 00:49:37.256
보세요.

00:49:37.356 --> 00:49:42.873
최고봉은이라고 했는데, 최고봉은
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.

00:49:42.973 --> 00:49:44.340
[B] 부분 볼게요.

00:49:44.440 --> 00:49:48.044
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
않았으나,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지만

00:49:48.144 --> 00:49:51.087
위로는 별자리에 닿을
것 같아, 뭐가요?

00:49:51.187 --> 00:49:52.532
최고봉이.

00:49:52.632 --> 00:49:55.819

아래로는 세상을 굽어 보고
있는 게 바로 뭐예요?

00:49:55.919 --> 00:49:58.513
최고봉이 굽어 보고 있는
거였네요, 그렇지?

00:49:58.613 --> 00:50:02.462
좌로는 부상을 돌아보고 있고,
우로는 서쪽 바다 접했고,

00:50:02.562 --> 00:50:04.504
소주, 항주를 가리키고,

00:50:04.604 --> 00:50:08.948
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라고
했으니까 이거 의인화 맞네요.

00:50:09.048 --> 00:50:11.047
좀 어려웠다, 그렇지?

00:50:11.147 --> 00:50:14.302
자연물이 최고봉인데, 최고봉을
이제 의인화하고 있죠.

00:50:14.402 --> 00:50:16.779
보기에는 자연물의 움직임을
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.

00:50:16.879 --> 00:50:17.808
왜?

00:50:17.908 --> 00:50:21.320
이게 뭐냐면 육합에 내리는 듯
어지럽게 노는 듯 구는지고

00:50:21.420 --> 00:50:24.489
누가 놀랐기에, 이런 것들이
전부 다 자연물의 움직임을

00:50:24.589 --> 00:50:26.521
비유적으로 표현하고
있으니까 정답 4번.

00:50:26.621 --> 00:50:28.866
상당히 좋은 문제네요, 어렵습니다.

00:50:28.966 --> 00:50:33.217
[A]와 [B]에서는 자연물의 모습을
관조하고 있고, 여기까지는 팬썹쥬.

00:50:33.317 --> 00:50:35.103
관찰하고 있는 거니까, 관조는.

00:50:35.203 --> 00:50:39.014
보기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
자신을 반성하고 있다는 게 틀렸쥬.

00:50:39.114 --> 00:50:41.147
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.

00:50:41.247 --> 00:50:45.019

최고봉이라고 하는 게 돌아보고
가리키고 끌어당기고 있었다.

00:50:45.119 --> 00:50:47.870

최고봉이 그러고 있었다,
이게 의인법이었네요.

00:50:47.970 --> 00:50:49.598

화자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.

00:50:49.698 --> 00:50:51.164

헛갈릴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.

00:50:51.264 --> 00:50:53.149

정답 4번입니다.

00:50:53.249 --> 00:50:56.229

보기를 참고하여 (가),
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

00:50:56.329 --> 00:50:57.665

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.

00:50:57.765 --> 00:50:58.802

아까 뭐였어요?

00:50:58.902 --> 00:51:01.989

와유는 집에서 보는 거고, 원유는
직접 가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.

00:51:02.089 --> 00:51:04.891

1번, (가)의 화자가
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

00:51:04.991 --> 00:51:14.211

다른 이들과 같이 장소를 와유할 때
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51:14.311 --> 00:51:18.324

아까 와유가 뭐라고 했냐면 글
등을 감상하며 여러 경치를

00:51:18.424 --> 00:51:22.220

간접적 방식으로 즐긴다고
그랬으니까 화룡소를 보고

00:51:22.320 --> 00:51:24.728

(가)의 화자가 감상한 부분은.

00:51:24.828 --> 00:51:28.071

즉,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이
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.

00:51:28.171 --> 00:51:29.442

즉, 봐봐 이런 거야.

00:51:29.542 --> 00:51:33.518

감상한 부분이 뭐였냐면 천 년
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

00:51:33.618 --> 00:51:36.967
하늘로 올라가서 삼일우 내리겠다,
이렇게 얘기했잖아요.

00:51:37.067 --> 00:51:40.339
이거는 실제 하늘에 올라가고
이런 모습을 본 게 아니니까

00:51:40.439 --> 00:51:44.165
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
때,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

00:51:44.265 --> 00:51:45.740
활용될 수 있겠죠.

00:51:45.840 --> 00:51:50.430
와유할 때, 이 글을 보고 그런
모습이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니까

00:51:50.530 --> 00:51:52.712
적절한 거예요, 1번은.

00:51:52.812 --> 00:51:54.490
그다음에 2번 볼까요?

00:51:54.590 --> 00:52:01.248
2번 보면 (가)의 화자는 와유를
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,

00:52:01.348 --> 00:52:05.727
여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
못하려니 이렇게 얘기했죠?

00:52:05.827 --> 00:52:09.853
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
여산, 이게 틀렸습니다.

00:52:09.953 --> 00:52:13.504
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, 애가
지금 여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

00:52:13.604 --> 00:52:14.984
금강산에 있잖아요.

00:52:15.084 --> 00:52:18.767
그러니까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
비교하고 있다, 적절하지 않죠.

00:52:18.867 --> 00:52:22.552
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여산이 여기보다
낫다는 말 못 한다는 얘기는

00:52:22.652 --> 00:52:25.585
화자가 상상을 통해서
비교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.

00:52:25.685 --> 00:52:28.777
그러니까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
모습이라고 하는 게 틀렸네요.

00:52:28.877 --> 00:52:31.518

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.

00:52:31.618 --> 00:52:32.805
어렵습니다.

00:52:32.905 --> 00:52:36.088
3번, (나)의 글쓴이는 원유를
통해, 직접 갔잖아요.

00:52:36.188 --> 00:52:37.844
실감한 자연의 형세를
표현하고 있다, 맞고요.

00:52:37.944 --> 00:52:41.411
(나)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
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에서

00:52:41.511 --> 00:52:45.543
원유가, 실제로 본 것이 호연지기를
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

00:52:45.643 --> 00:52:47.132
알 수 있다, 맞죠.

00:52:47.232 --> 00:52:51.688
(나)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
통해서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.

00:52:51.788 --> 00:52:53.105
와유, 상상했던 거죠.

00:52:53.205 --> 00:52:56.866
상상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
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

00:52:56.966 --> 00:52:58.176
비교하고 있다, 맞죠?

00:52:58.276 --> 00:53:01.266
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
있다, 적절합니다.

00:53:01.366 --> 00:53:04.886
2번 문제가 상당히 좋았네요.

00:53:04.956 --> 00:53:06.229
원유를 통해
실제 가봤잖아요.

00:53:06.329 --> 00:53:09.092
그런데 실제 보면서 뭘
본 게 아니에요?

00:53:09.192 --> 00:53:12.670
여산의 모습을 본 게 아니니까
정답은 2번이 되겠죠.

00:53:12.770 --> 00:53:14.850
여러분, 여기까지입니다.

00:53:14.950 --> 00:53:17.420

여기까지 우리 표현 기법
여러 개 살펴봤고요.

00:53:17.520 --> 00:53:21.172

그다음에 시상 전개
방식도 살펴봤습니다.

00:53:21.272 --> 00:53:25.341

두 작품,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,
관동별곡, 유한라산기를 통해서

00:53:25.441 --> 00:53:27.190

작품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.

00:53:27.290 --> 00:53:28.455

고생하셨습니다.

00:53:28.555 --> 00:53:31.602

유형에서 세 번째는 표현인데,
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

00:53:31.702 --> 00:53:34.421

어렵지는 않은데, 혹시라도
자기가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

00:53:34.521 --> 00:53:36.314

다시 한번 확인해
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53:36.414 --> 00:53:37.837

여러분, 다음 시간에 뵈게요.

00:53:37.937 --> 02:37:34.588

수고하셨습니다.